

미국 / 일본 보험사의 저금리 영향과 대응사례

일본 및 미국의 사례 연구

발표자:
안치홍 대표
밀리만 (서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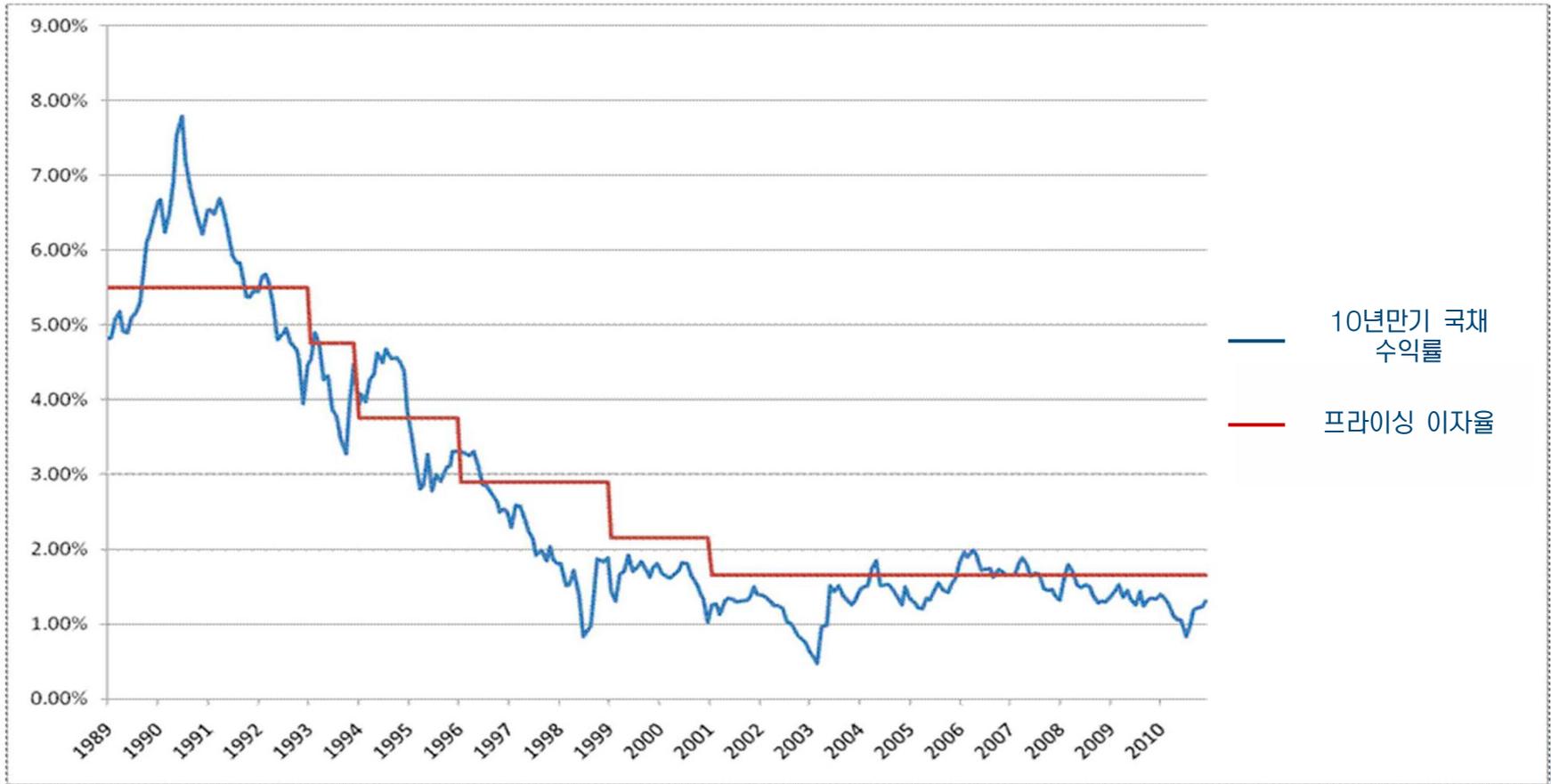
2012년 12월 5일



I. 일본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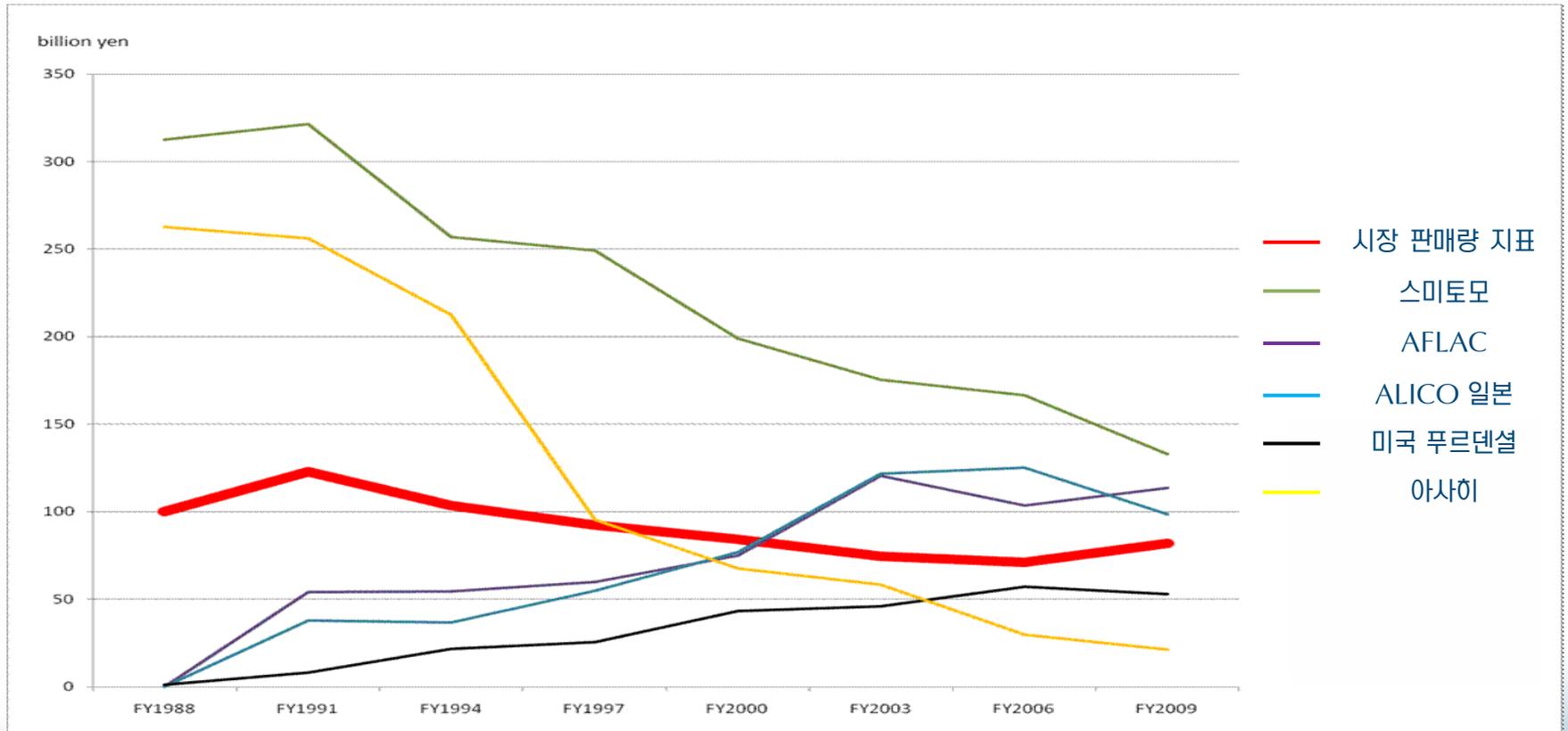
버블 붕괴 후 일본의 금리

- 버블이 붕괴된 시기와 저금리 시기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음



개인보험 - 신계약 연환산보험료

- 두개의 다른 위기는 보험시장에서의 재편을 가지고 왔음
 - ✓ 버블 붕괴기: 급작스러운 자산의 부실에 따른 파산과 재정적인 부담(일시적인 부담)
 - ✓ 저금리기: 보험상품의 마진의 감소 (장기적인 부담)



생명 보험 회사의 실패 요인

(Nissan, Toho, Chiyoda, 그 외)

➤ 저금리의 영향으로 파산한 경우가 아니고, 버블의 붕괴가 파산 요인임

➤ 저금리 환경이 동시에 도래하였다면, 보험사예의 타격은 회복 불가 수준이었을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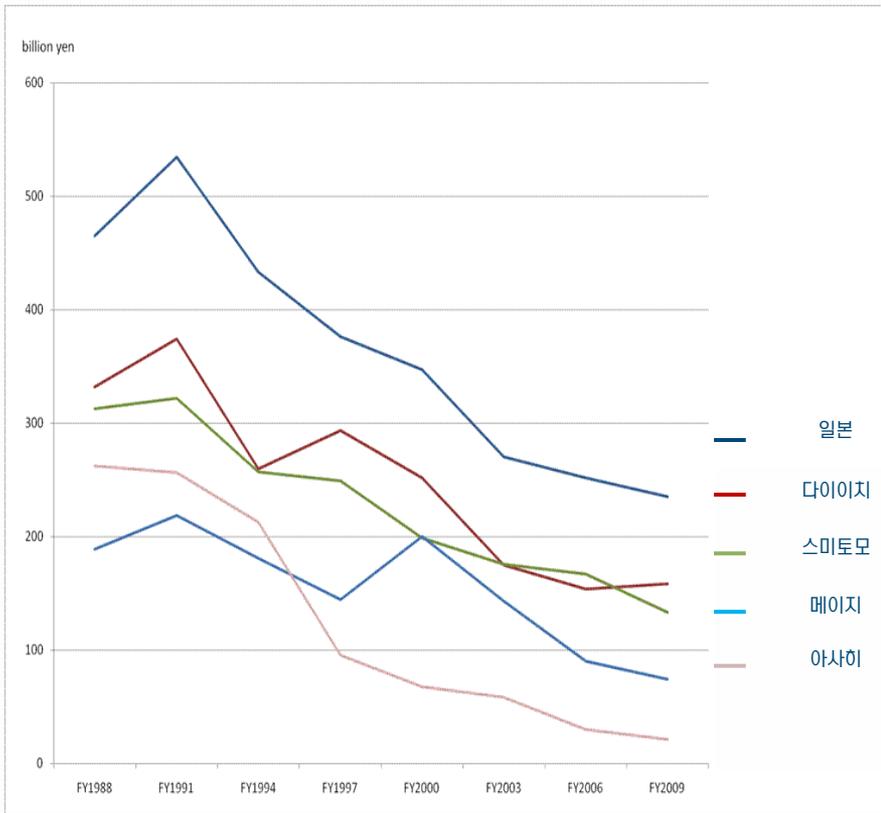


*Keiretsu 그룹내 대출

**Nissan 자산 10년내 5배 증가, 은행과 공동 마케팅 준비

신계약 연환산보험료

전통 생명보험 회사의 연환산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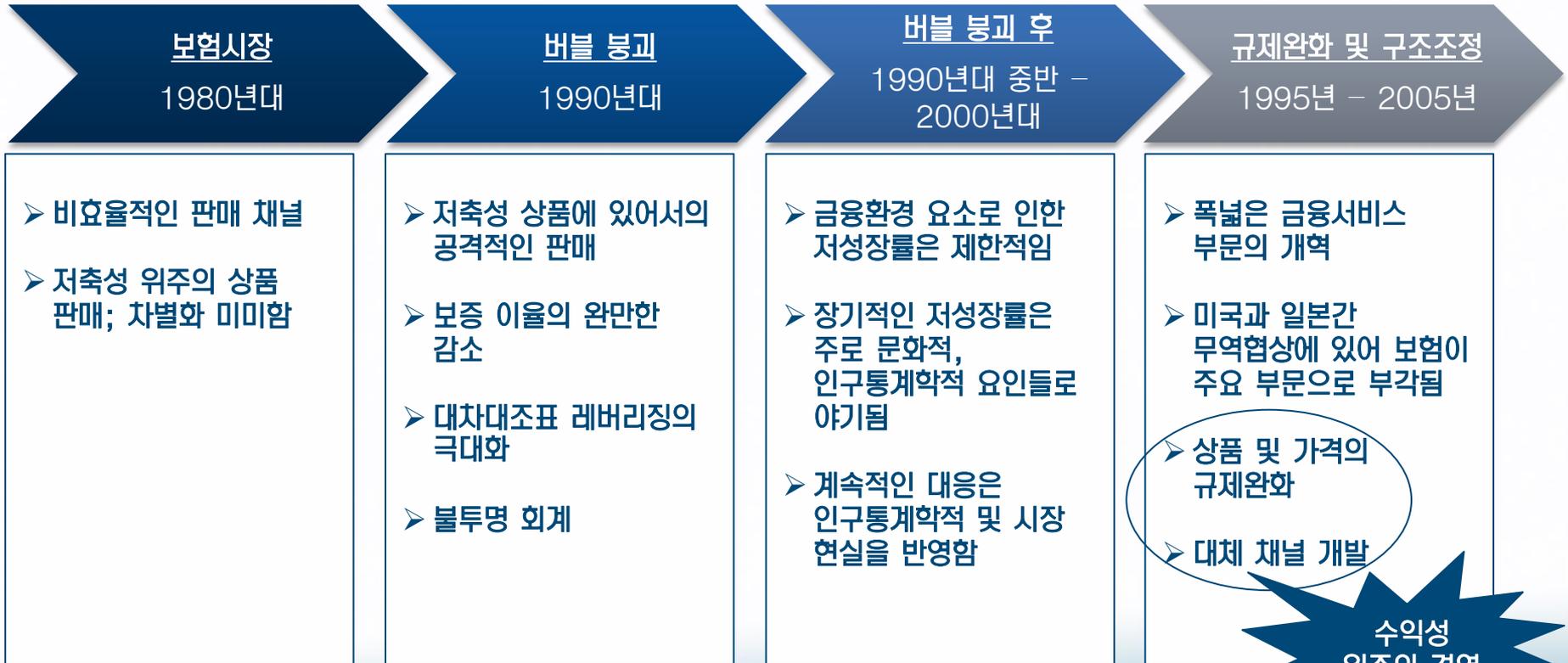


성공적인 회사의 연환산보험료



일본 생명보험 산업의 배경

- 산업정책, 은행 및 보험: Keiretsu 시스템
(Keiretsu; 금융사와 대기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상호 편익을 제공하는 일본식 금·산시스템)
- 1970년대부터의 국제적인 영향력으로 등장 (Japan, Inc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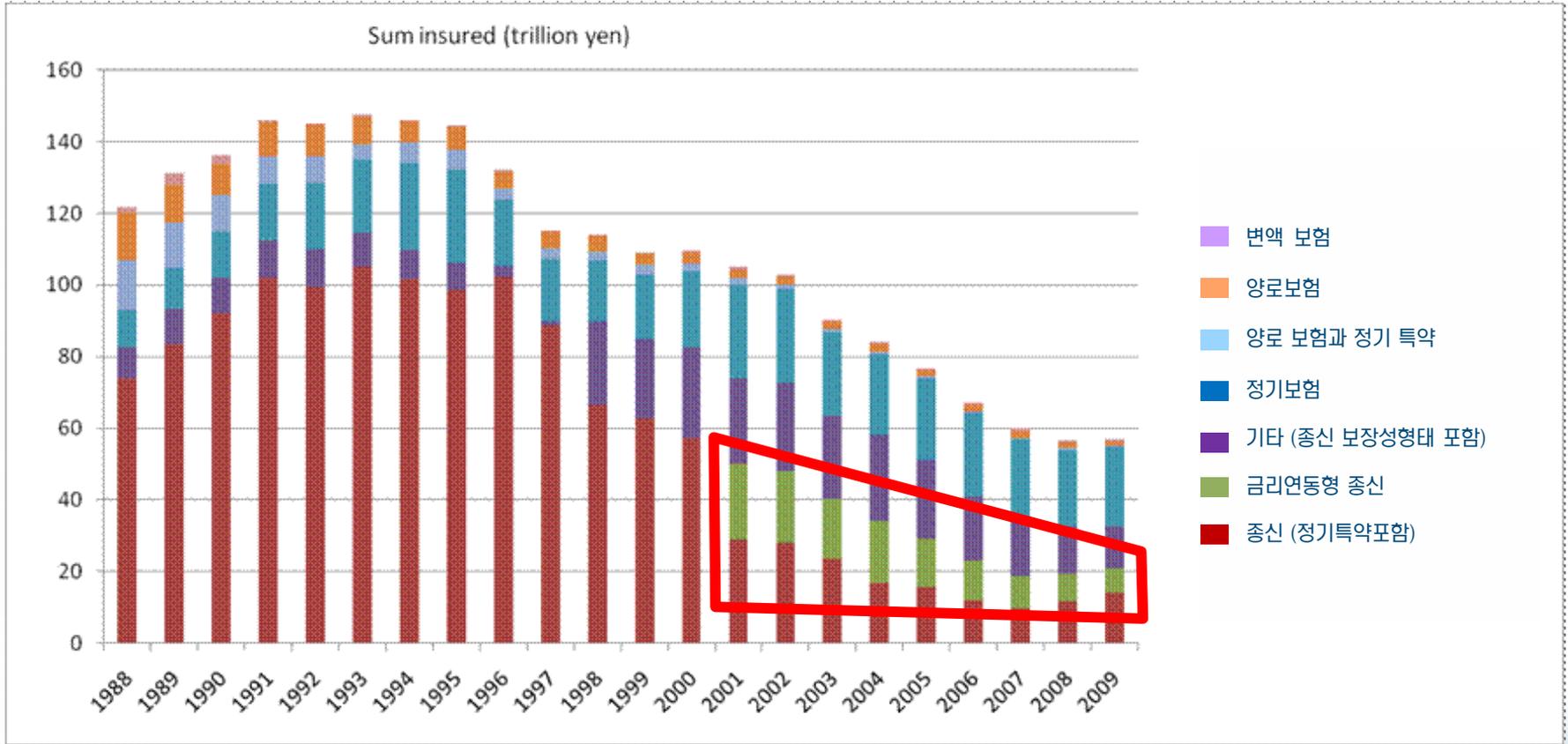
수익성 위주의 경영

시장의 구조 조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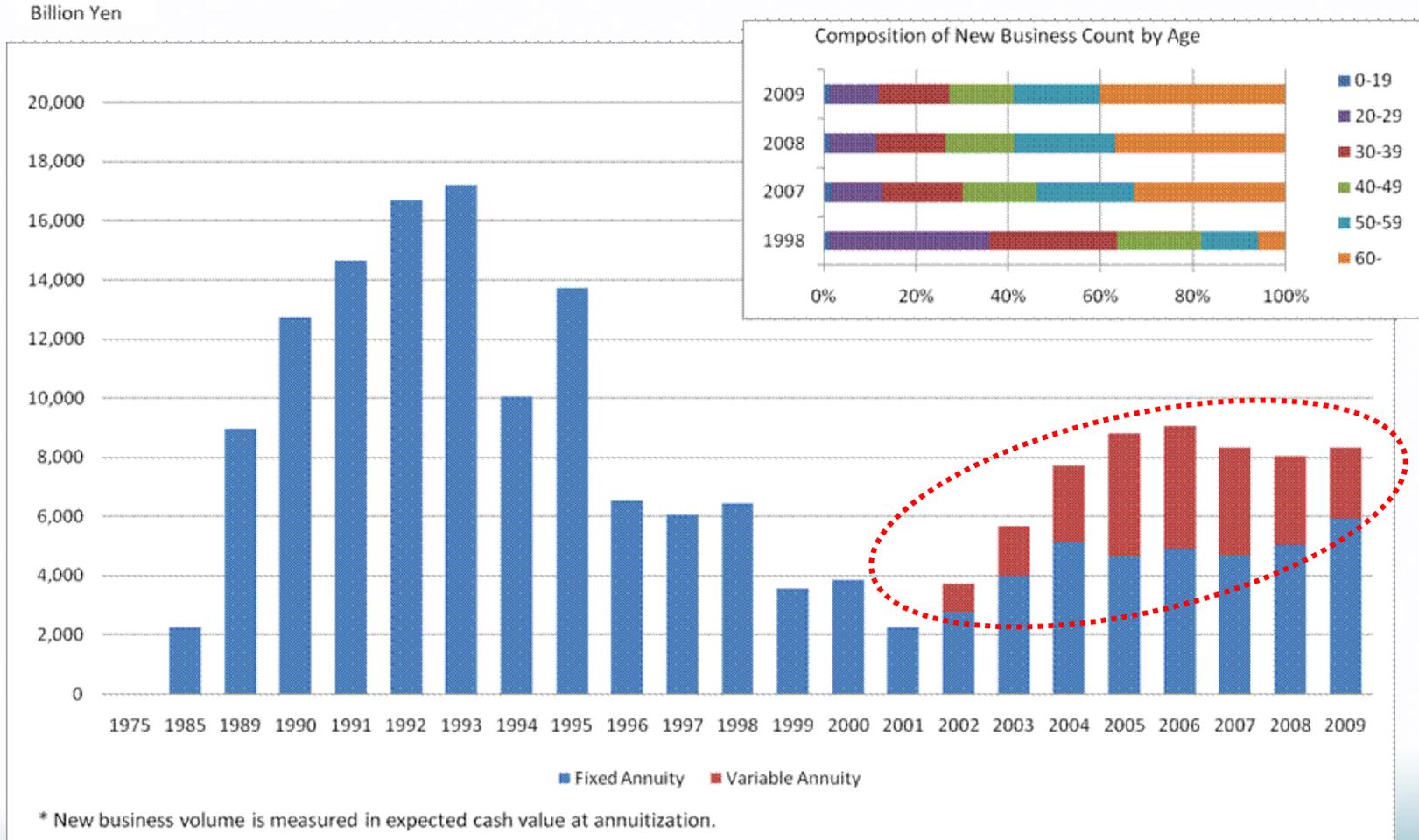
상품 혁신과 리포지셔닝

개인 생명보험 판매 : 금리연동형과 보장성 보험 판매로 리포지셔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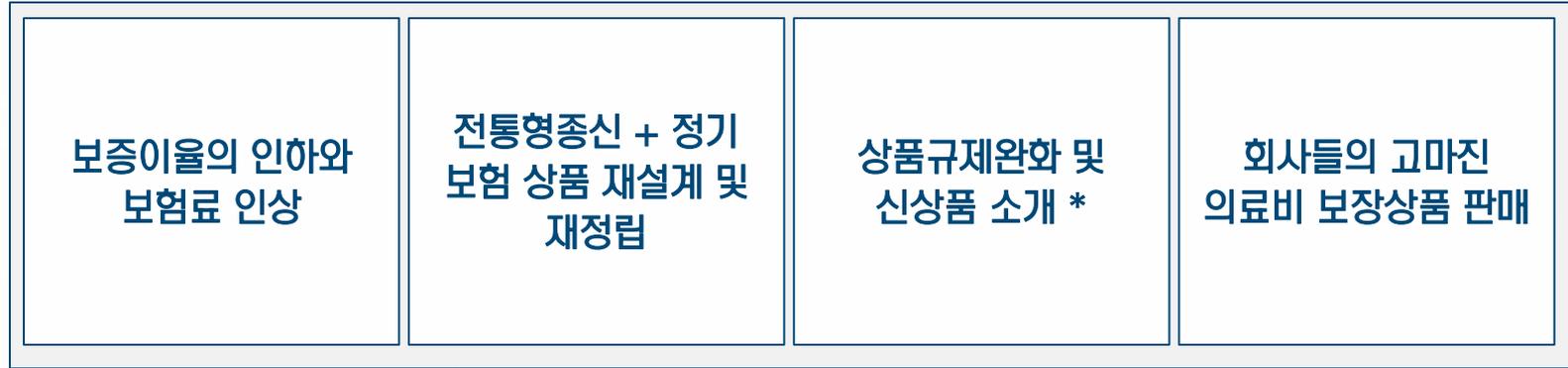


상품 혁신과 리포지셔닝

개인연금 판매: 저금리에 대응으로 변액연금 출시



버블 붕괴 이후 상품개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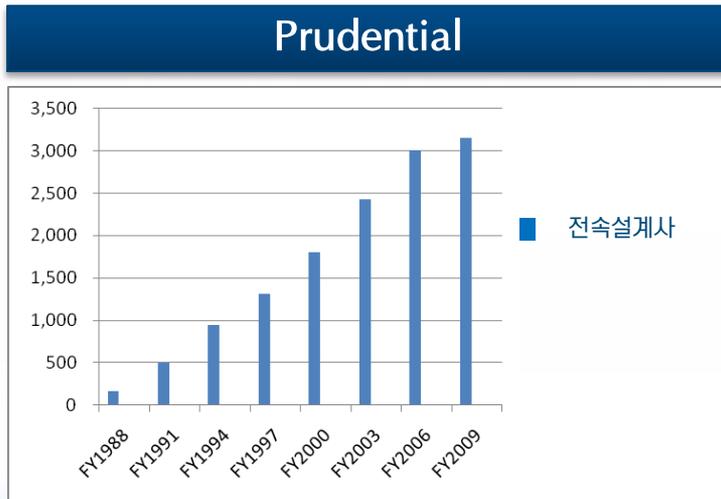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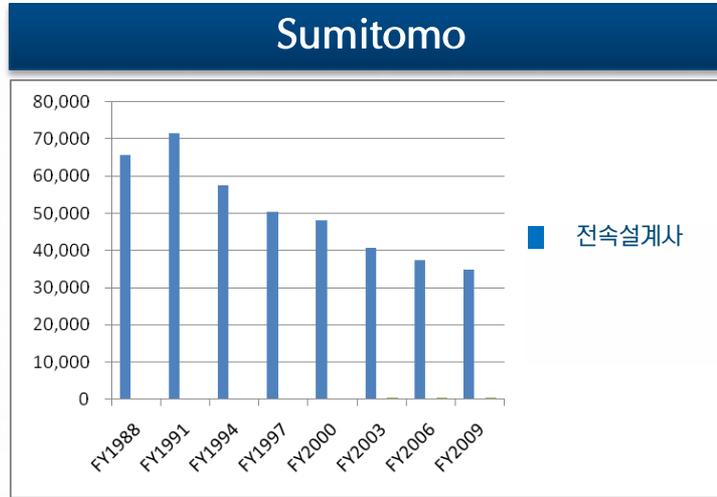
판매 채널 및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대한 경쟁 심화

하지만, 가격 경쟁 완화

→→ 자본금 및 잉여금 재건 가능

* 신상품: 금리연동형 종신/ 낮은 해약환급금지급 종신 / 우량채 상품 / 의료비 및 LTC 보장 / 변액 연금

영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: 설계사 조직



성공 사례 분석

Daido Life

- ▶ 틈새 시장에 집중: 중소 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정기보험 판매
- ▶ 신중한 저축성 상품 판매
- ▶ ALM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조기 인식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춤
- ▶ 규모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Taiyo Life 와의 업무 협력 (예: 시스템 공동 개발)
- ▶ 상호회사의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시장 접근
- ▶ 보고의 투명성 확보; 내재가치 평가 (EV)

Tokio Marine Anshin Life

- ▶ 1996에 시장 진출; 회수 불능의 대출금 혹은 고금리를 보증하는 부채 포트폴리오가 없음
- ▶ ALM 프로토콜 및 최신의 투자 철학 즉각적 도입
- ▶ 국제적으로 전문화된 P&C 보험사
- ▶ 낮은 해약환급금의 종신보험상품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케팅 함
- ▶ 그룹 브랜드의 성공적인 활용

Aflac

- ▶ 틈새 신상품들을 활용 (암, CI 상품)
- ▶ Corporate Agency 를 통한 매우 성공적인 판매망 추구
- ▶ 시스템에 대한 높은 투자; 계약자 서비스 및 효율성에 초점
- ▶ 리스크 관리와 연결된 혁신적 투자전략
- ▶ 상세한 재무보고
- ▶ 지속적인 상품 프라이싱, 리프라이싱 및 평가

Prudential

- ▶ Sony Life와 함께, 니드 기준의 판매에 집중한 업계 최초의 전문설계사 판매채널 소개
- ▶ 설계사 모집 및 트레이닝에 인내심을 가지고 온 신경을 다 써서 집중함
- ▶ 낮은 금리 리스크와 높은 이익 마진을 갖는 보장성이 높은 상품
- ▶ 이익에 집중된 GAAP 보고
- ▶ 낮은 비용 비율
- ▶ 순차적인 기업 인수의 성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능력 (Kyoei, Aoba, AIG Star, AIG Edison)

성공사례의 공통 요인

해외 톱 수준의
투자 부서;
ALM 중심의
투자전략 유지

상대적으로 강한
리스크 관리

변화에 개방적
(상호회사의 기
업공개): 기회
포착

거품기간의
실수에 대한
상대적 저 부담
(B/S drag)

사업비 절감 목적의
적극적인 시스템
투자

상품 혁신의
선두주자;
추종자가 아님

잘 정의된 상품
틈새 시장

상품의 수익성에
대한 집중

니드 기준의 판
매: 시장에 대한
정확한 인식, 인
구통계

II. 미국 사례

미국 vs 일본의 금리

미국과 일본의 국채 수익률



미국 vs 일본의 금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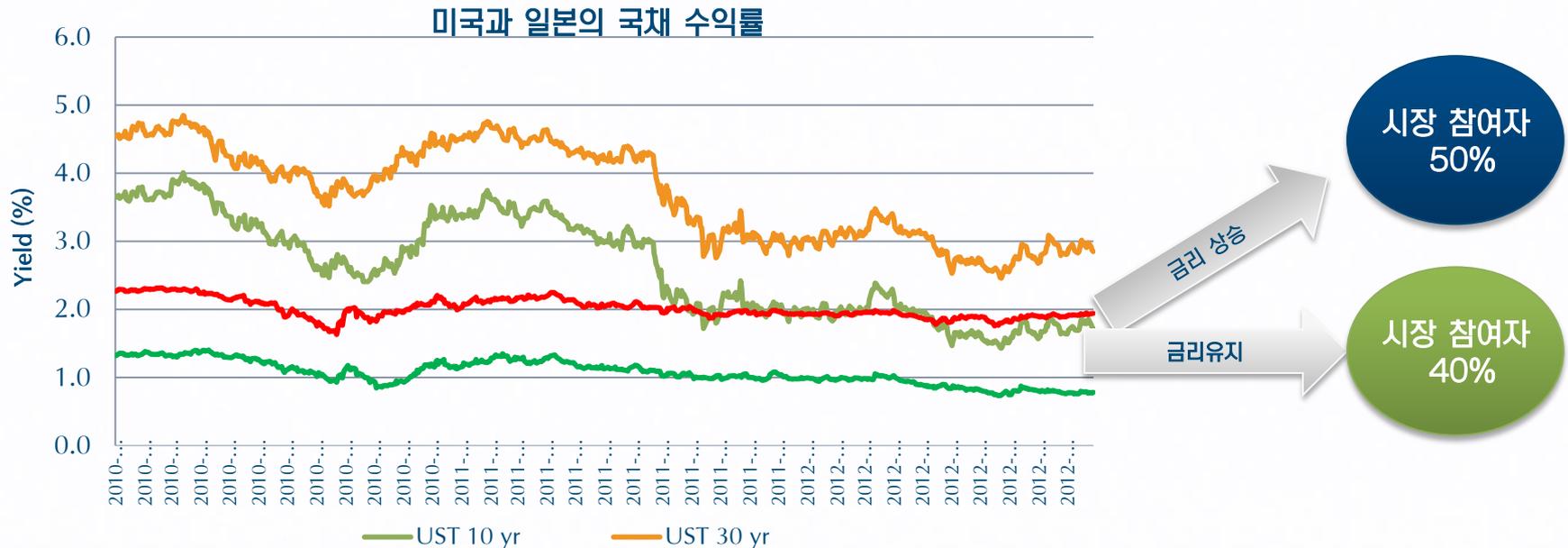
- 최근의 추세는 일본과 유사한 저금리 상황

미국과 일본의 국채 수익률



시장에서의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예측

- 시장의 다수(50%)가 앞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
- 반면에 아직도 시장 많은 참여자 (40%)는 현재의 저금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함



시장에서의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보험사의 반응

- 기본적으로 미국회사는 상품 판매 시 이미 정교한 “ALM” 을 적용하기에 대부분의 보유계약이 잘 매칭되어 있음
- 미국은 일본시장과는 다르게 현재의 저금리에 대한 반응이 상반되게 보이고 있음
 - ✓ 보유계약이 많은 회사:
 -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갑작스러운 계약자 이탈현상이 나타날 것을 염려 (55%)
 - 금리 상승 후 시장에서 “저렴한 보험상품”이 출시 될 경우, 계약자들의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급속히 이동할 가능성
 - ✓ 신계약을 많이 하는 회사:
 - 저금리 현상이 지속됨으로 인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기존 계약에 비해서 가격경쟁력 상실 (45%)
 - 성장전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

미국 vs 일본: 생명보험 산업

리스크 관리 및 자본력

	일본	미국
리스크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융 위기 초기의 리스크 관리 부재 ▪ 시스템 부족 ▪ 수익성보다 자산 증대에 집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비교적 강하고 잘 발달된 리스크 관리 ▪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투자 ▪ 주력 상품의 높은 수익성; 상품개발은 환경에 대응하는 계속적 프로세스임 ▪ 상품, 운용, 보고, 등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
자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불투명한 회계 ▪ 부실한 대차대조표 ▪ RBC 도입시도는 부실 기업으로 보이기를 꺼려해서 희석되었음 ▪ 보유계약 부채는 수익성에 큰 제동을 걸고 있음 (높은 보증 이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상대적으로 투명한 회계 ▪ 2008년 위기 이후 재건된 대차대조표; 견고한 업계 RBC ▪ 비교적 안정적인 감독 보고 ▪ 대체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보유계약 부채

미국 vs 일본: 생명보험 산업

상품 혁신

일본	미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 위기 초기 제한적인 상품 수익성 분석; 상품내 리스크에 대한 인식 부족 ■ 금융 위기 동안 규제완화 거쳐감: 후발 주자에게는 큰 기회 제공함; 문제 회사의 붕괴 가속화함 ■ 규제완화로 지속적인 상품 개혁과 수익성 있는 틈새 시장을 이끌어 나감 ■ 보장성상품들 (정기보험, 상해보장상품)이 업계를 구제함 ■ 주요 회사들의 재무적 약화로 인해 보장성상품들의 이익 마진을 높게 유지됨 ■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결국은 고객들이 1% 이하의 수익율을 받아들였음; 자산 보존으로 이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잘 발전된 상품개발 프로세스 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규제 환경 ■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상품 혁신; 저금리환경에 대응하는 몇몇의 혁신들 ■ 보장성상품에 있어 매우 경쟁적인 환경 ■ 가격경쟁이 초과 수익을 제거함; 업계전반적으로 상품의 IRR을 압박함 ■ 소비자 수용여부 알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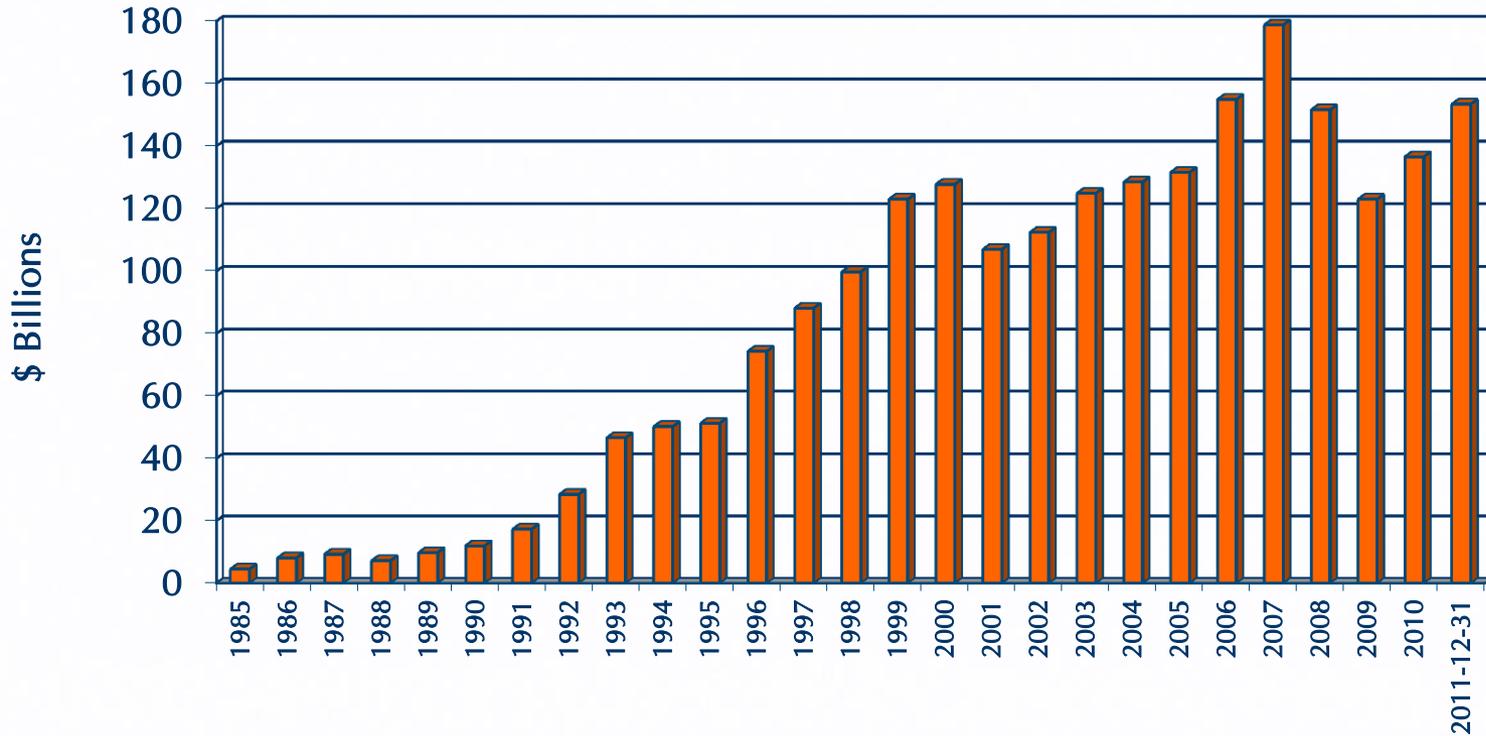
미국 vs 일본: 생명 보험 산업

판매 채널 및 운용 비용

	일본	미국
판매 채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거 전속 판매망의 쇠락은 기존사들에게는 저금리시기에 부담을 주었지만, 후발 주자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판매 시스템으로 성장하게 함 판매채널은 비용 감소로 구조 조정이 촉진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쟁이 매우 치열한 판매 채널 영업비용 인하는 어렵지만, 저금리 환경 내에서는 필요 할 것임
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통 기업들은 앞으로 상당한 사업비 구조 조정이 요구되었음 대형사들도 채널의 효율성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사들은 지금은 효율적이지만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절감이 필요할 수 있음 채널 및 상품에 있어 이미 다양화 되어 있지만, 추가 채널의 다양성이 요구됨

저금리 시장에서의 이슈 – 변액연금의 리스크 관리

과거 미국 VA 연간판매량



2011년 변액연금 (VA) 판매량

- 2011년간 신규 VA업계 판매 총액은 \$1,534 억 달러이며 이는 2010년 대비 12.3%의 증가임
- 2011년간 상위 3개 VA사업자의 개별 VA에 대한 Combined market share
 - MetLife: 21.7%
 - Prudential: 15.4%
 - Jackson National: 13.3%
- 2011년간 상위 8개 사업자의 개별 VA 판매량 시장점유율은 약 75%임
- 2011년말 변액연금 자산 운용액은 \$ 15,023억 달러 이며 본질적으로 2010년말 자산운용액인 \$15,044억 달러와 비교하여 큰차이가 없음

자료 : Morningstar

저금리 시장에서의 이슈 – 변액연금의 리스크 관리

- 전통형/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에는 ALM 매칭이 잘 구축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이슈사항이나 변액연금의 리스크관리에 많은 이슈가 발생
-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보증비용이 급상승하여 그동안 “naked” 전략이나 “partial hedging” 전략을 적용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봄
 - ✓ 동시에 미국회계기준 (US-GAAP, SAP(감독회계))에서 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강화함
 - ✓ 많은 리딩회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회사자체를 매각함
 - Hartford Life – Prudential US (개인보험), MassMutual(퇴직연금)에 매각
 - SunLife / ManuLife / ING / Genworth – 미국시장에서 신계약 영업 중단
- 보험소비자 측면에서는 “변액보증”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여 선택률이 약 90%를 육박함
 - ✓ 많은 보험사는 보증비용을 높이거나 펀드투자전략을 재조정하여 헤징비용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음 (De-risking strategy)
 - ✓ 현재 보증비용의 수준은 약 1%

III. 시사점

미국 / 일본 사례에서의 시사점

➤ 일본 사례

<p>상대적으로 낮은 고금리에 대한 노출</p>	<p>보수적 준비금 적립</p>	<p>다양한 마진의 원천 확보</p>	<p>마진 우량한 보장성 보험의 발굴</p>
<p>✓ 일본은 6% 이상의 고금리가 형성되었던 시기가 거의 없어,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(4% 수준의 예정이율)</p>	<p>✓ 순보식 준비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“준비금이 보수적으로 산정되었다”</p>	<p>✓ 저금리로 인해서 하락하는 마진을 다른 소스에서 찾는데 집중하였다</p>	<p>✓ 우량한 보장성보험을 판매하여 사차마진을 약 30% 내외 확보하는데 성공하여 재무건전성을 향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</p>
<p>판매채널의 효율화</p>	<p>상품변화</p>		<p>금융당국의 지원</p>
<p>✓ 판매채널의 효율화로 사업비 절감</p>	<p>✓ 상품에서의 많은 변화가 생김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리연동형 종신(보장성)보험 • 다양한 정기보험 (우량체 / 비우량체) • 해약환급금이 낮은 종신 • 수익성이 높은 의료비 		<p>✓ 제도를 자유화하여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함.</p> <p>✓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임.</p>

미국 / 일본 사례에서의 시사점

➤ 미국 사례

철저한 금리 리스크 대비

- ✓ 금리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약함

상품수익성 약화

- ✓ 가장 큰 이슈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임

이자율 상승에 대한 우려

- ✓ 해약급증 위험에 대한 우려

변액보험의 활성화

- ✓ 저금리 상황에서의 전통형상품의 마진 축소를 변액보험으로 보완하여 판매를 활성화.
- ✓ 금융당국의 적시적인 정책으로 많은 생보사들이 사업초기 부터 “hedging”을 기본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함.

변액 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

- ✓ 그러나 일부 보증리스크 관리 실패로 “naked” 전략과 “partial hedging” 전략이 위기 순간에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
- ✓ 헤징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매각

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전략

- ✓ 변액보험에 있어서 “보증리스크”를 줄이려는 상품디자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음
- ✓ 펀드의 투자전략을 변경하여 보증리스크를 일정한 범위내로 관리하는 기법

한국보험사예의 시사점 (1)

리스크 관리 강화

- 한국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지금 까지 일본/미국사의 저금리 경험의 상당 부분을 도입하여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음
 - ✓ 금리연동형/변액 위주의 신계약 활동
 - ✓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
 - ✓ 투자자산에 대한 건전성 제고과 ALM에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음
 - ✓ 보장성 보험의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려는 꾸준한 노력
 - ✓ 현금흐름프라이싱 (CFP)의 도입으로 회사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강화
 - ✓ RBC 제도의 도입으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
 - ✓ 보증준비금 등 금융위험을 감안한 새로운 준비금 제도 도입
 - ✓ 부채 적정성 검증 / 자산 적정성 검증 강화

한국보험사예의 시사점 (2)

한국 보험사의 기존 대응 방안

- ▶ 한국보험사는 ALM 전략 수행에 있어 선진사에 비해 수동적인 관리전략을 채택
 - ✓ 신계약에 있어 금리연동형 비중을 높임으로써 추가적인 금리리스크를 축소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
 - ✓ 저금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리스크관리 기법이 아닐 수 있음
 - ✓ 저금리로 인해서 판매된 계약의 마진이 악화되어 리스크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
 - ✓ 또한 금리연동형을 판매함에 있어 과도한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함으로써 금리리스크를 확대시킴
 - ✓ 회사의 최저보증이율 정책이 리스크 관리 관점이 아니라 영업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왔음

한국보험사예의 시사점 (3)

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

- 모든 보험사의 변액보험의 보증에 대한 헤징전략이 “Naked” 임
- 다른 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보험리스크에 관해서는 “Naked” 전략이 전통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어도, 금융리스크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전략임이 증명되었음
 - ✓ “Naked” 전략은 좋은 리스크관리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경영환경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음
 - ✓ 보험소비자의 보증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앞으로 역선택 현상으로 인해서 헤징이 더 힘들어 질 수도 있음
- 금융리스크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가 “금리역마진 계약”의 해약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임
 - ✓ 앞으로도 소비자의 역선택이 더욱 강화되어 손실규모가 증가할 것임

한국보험사예의 시사점 (4)

저금리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

- 저금리 지속에 따른 리스크는 상품의 수익성 마진이 감소하여 재무상태가 점차적으로 악화된다는 것임
- 마진 하락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:
 - ✓ 한국의 사차마진 (Mortality /Morbidity Margin)이 선진사와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
 - ✓ 사업비 수준이 높음. 특히 대다수의 보험사가 다판매채널(multi-channel) 전략을 기본으로 구사하지만 사업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
- 전속채널을 포함한 대면채널 판매과정에서의 고비용구조 재검토
- 마진이 감소하는 만큼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
 - ✓ “최저보증금리”에 대한 적절한 평가/조정이 필요함
 - ✓ 경영진의 리스크 축소에 대한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(정책/ 경영평가)
 - ✓ 현재 급속하게 늘어나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(예: 장수리스크)

한국보험사예의 시사점 (5)

다양한 대응 전략 – 보험정책적인 측면

- 그동안 논의는 되었지만 리스크관리에 활용이 안된 보험정책에 대한 적극적 도입 검토
- 금융재보험 (financial reinsurance)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: 실질적으로 금융재보험이 보험사의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관리 방법으로 활용
- 상품의 구조변경 모색: 해약환급금이 낮은 상품 개발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모색 강화
- 사차이익률의 개선: 업계 공통적인 관리기구 설립 / 표준이율의 보수적인 접근
- 보험사의 리스크를 준비금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 필요
 - ✓ 보험사 경영진의 리스크관리에 관심 증대
 - ✓ 경영진은 리스크를 줄이거나 (de-risking) 제거하는 (hedging) 전략에 관심이 가지도록 유도
- 표준이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

저금리 시대, 보험산업 영향과 과제

2012. 12. 5.
조재린 연구위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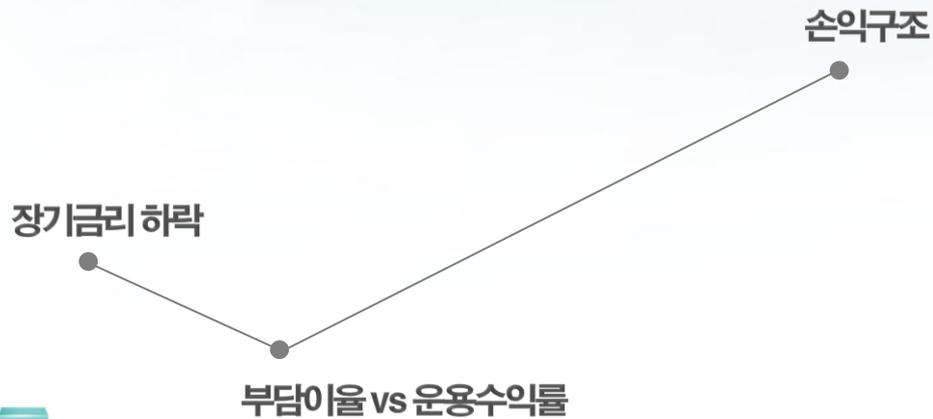
1kiri

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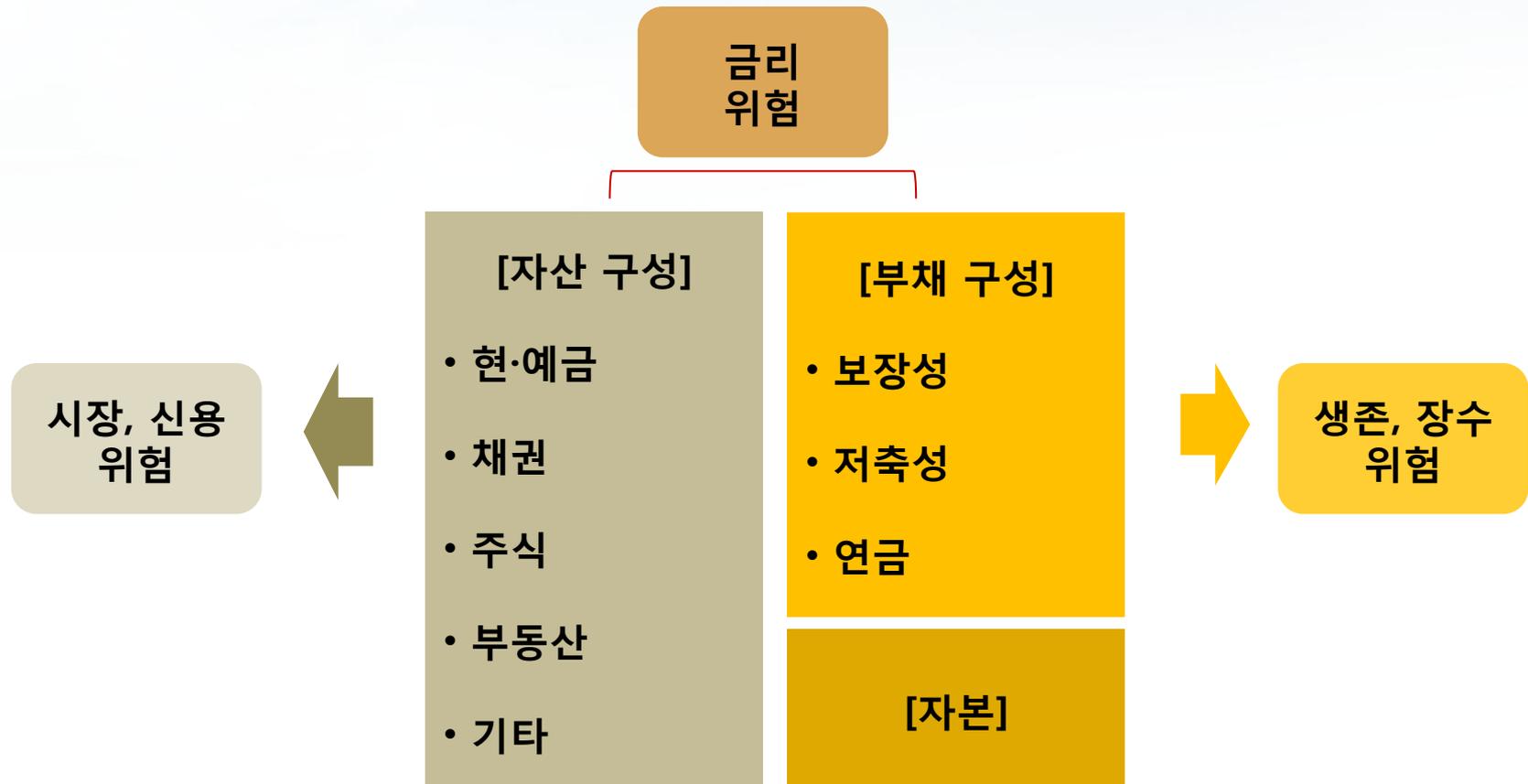
I	저금리 현황	3
II	저금리영향 분석(생명보험사 중심)	12
III	향후 과제	23
IV	별첨 : 손해보험사 저금리영향 분석	27

I 저금리 현황



I-1. 보험회사의 주요 위험

- 보험산업의 총 자산규모는 629조원 (생명보험 497조원, 손해보험 132조원)
- 보험회사는 금리위험과 보험위험에 크게 노출



1-2. 장기금리 하락 추이와 지속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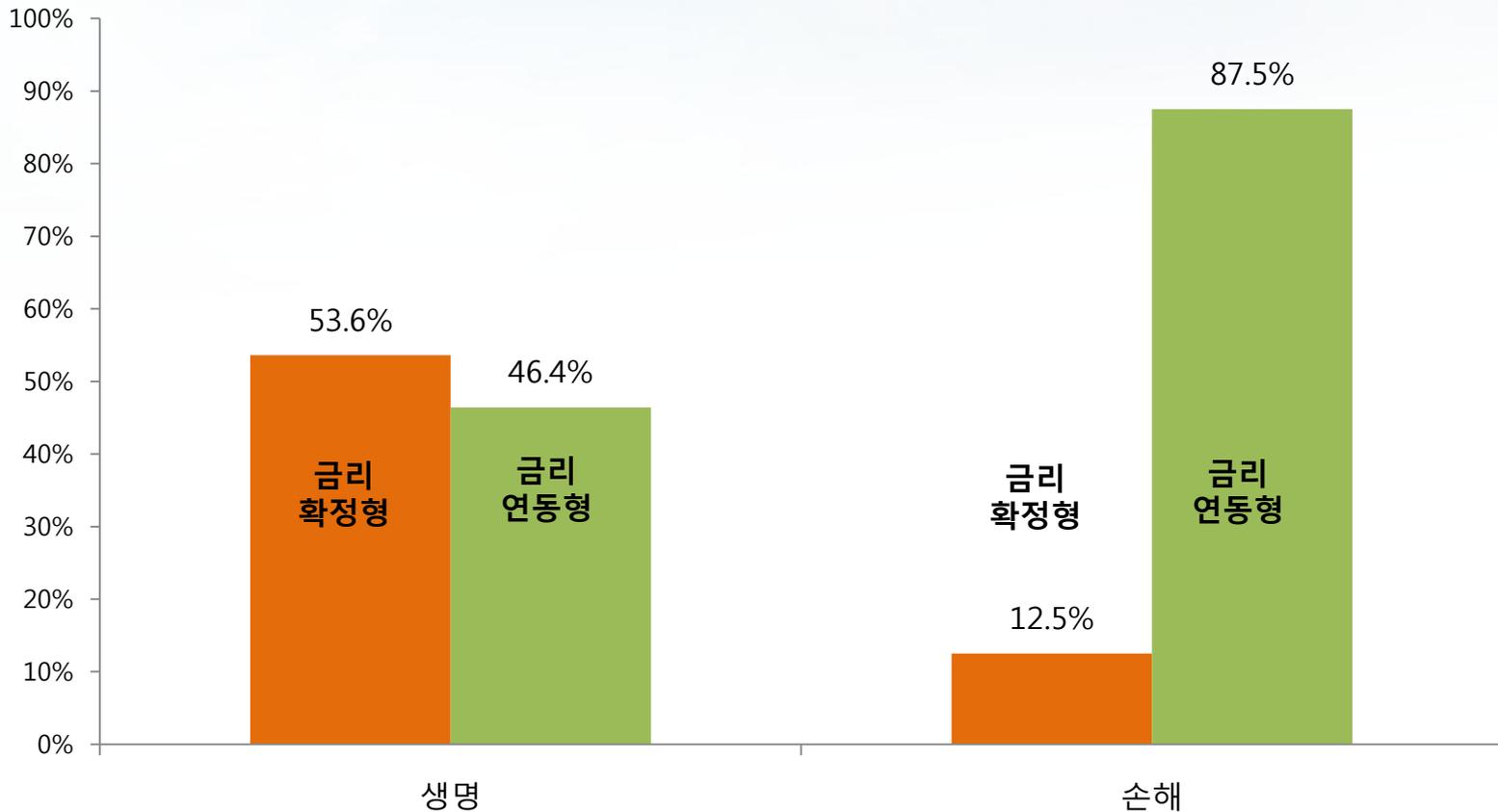
➤ 국고채(10년),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

2008년 12월: 6.03% → 2012년 11월: 2.97%



I-3. 보험회사의 이율 형태별 부채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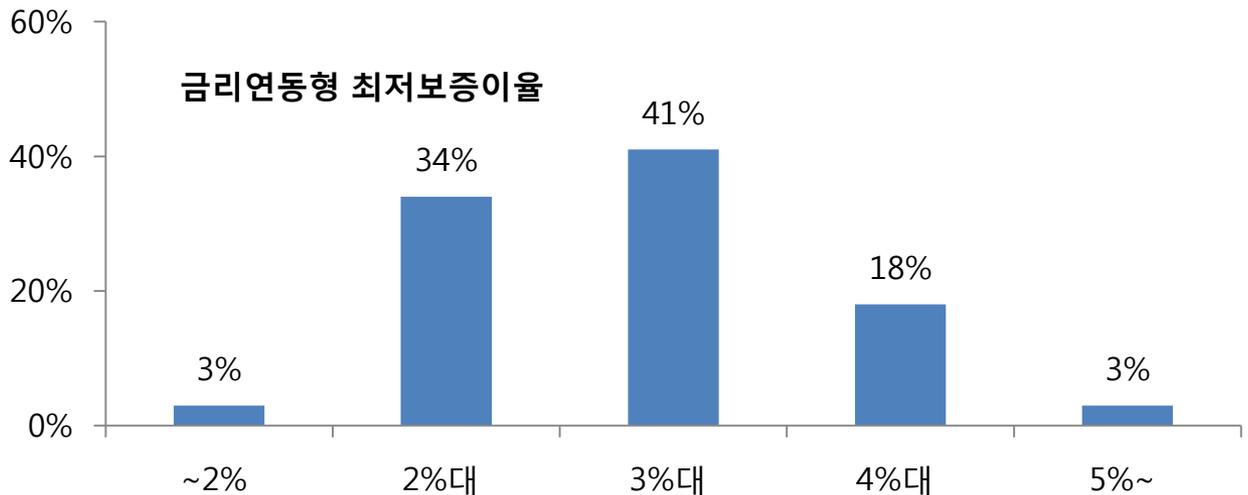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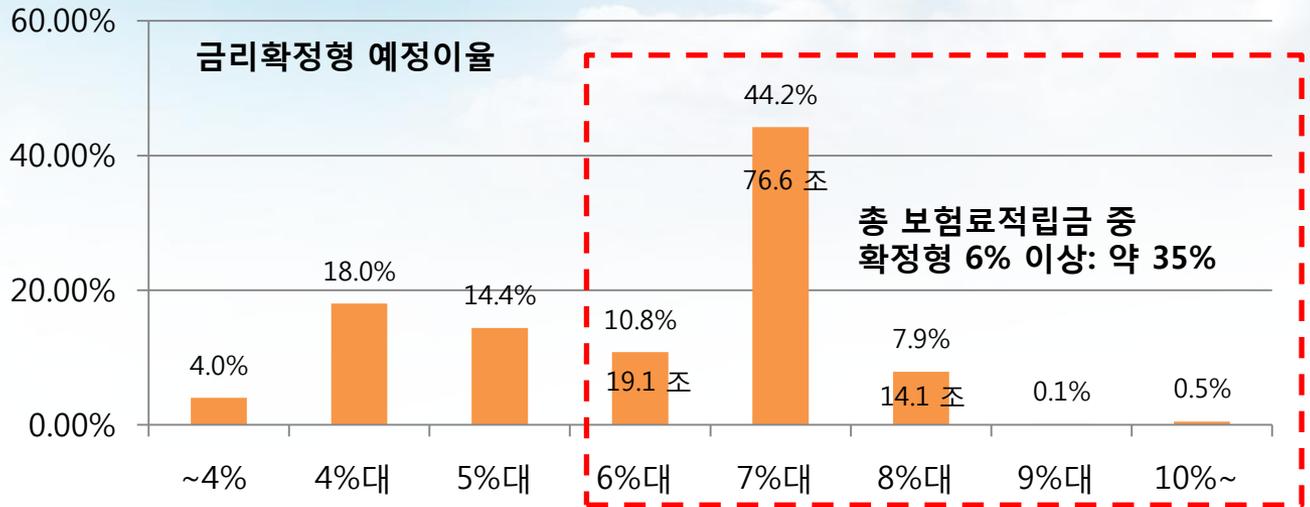
➤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저금리에 보다 취약한 구조



I-4. 생명보험 준비금 부담이율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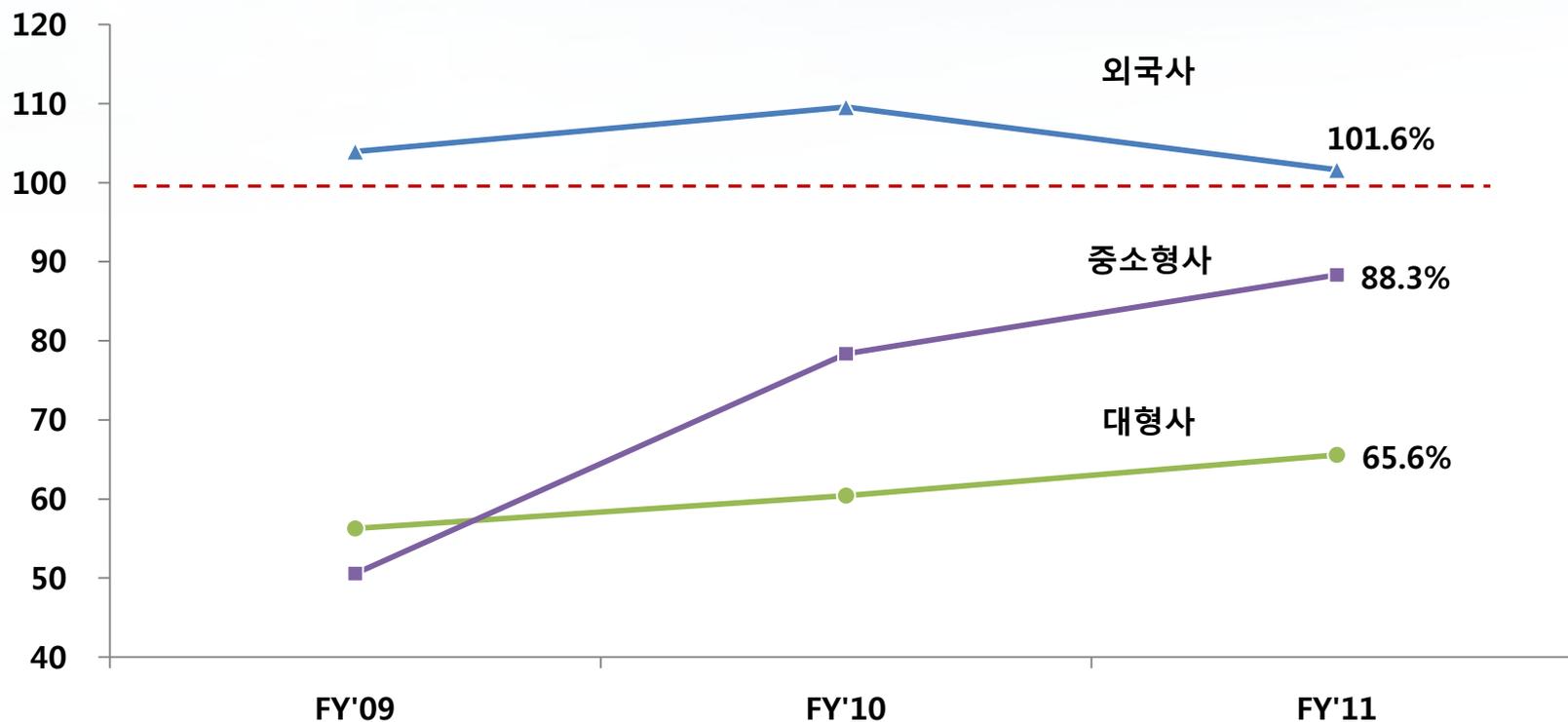
총 297조원



I-5.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매칭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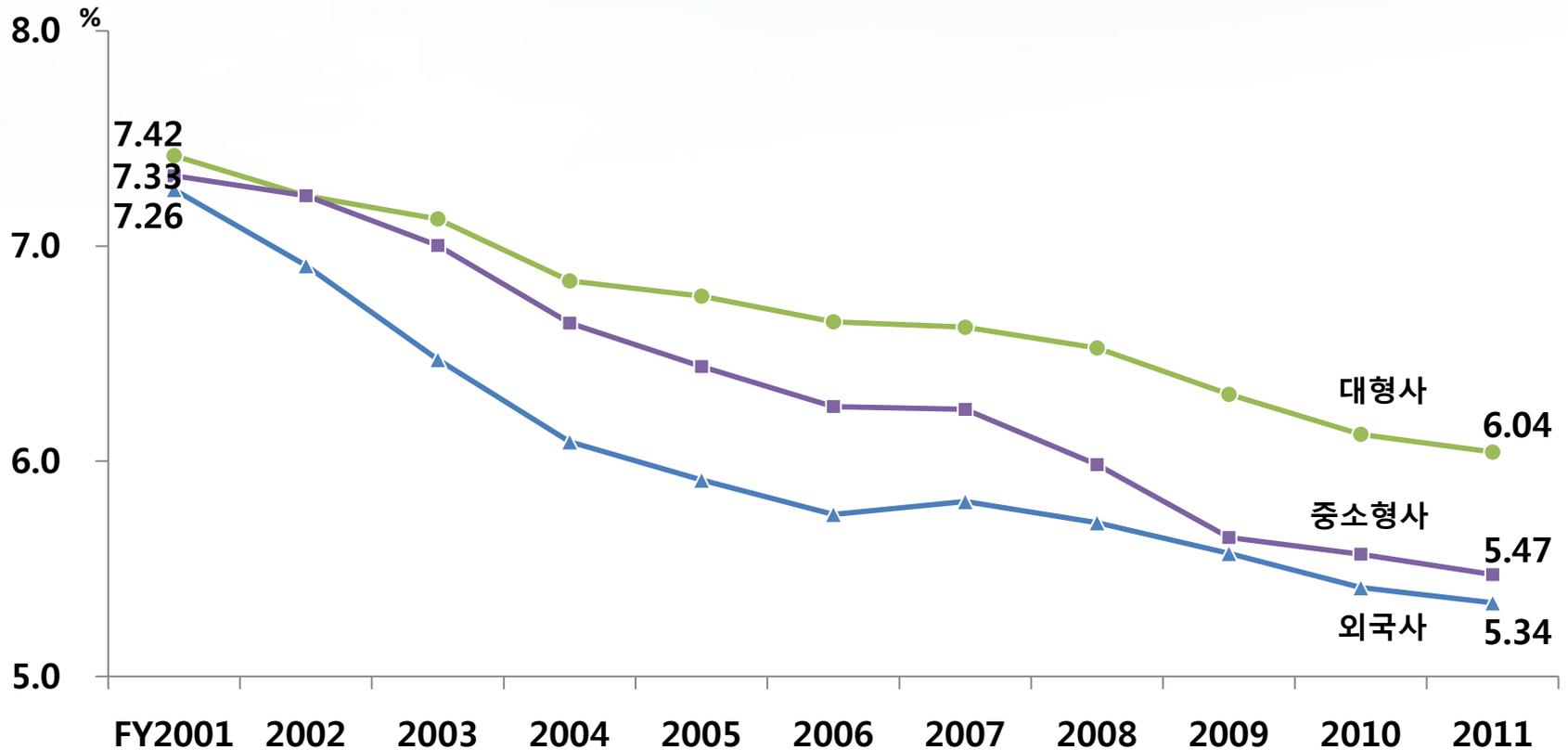
➤ 대형 생보사의 자산-부채 매칭 정도가 가장 낮음

자산-부채 매칭 척도 = 자산의 금리민감액 / 부채의 금리민감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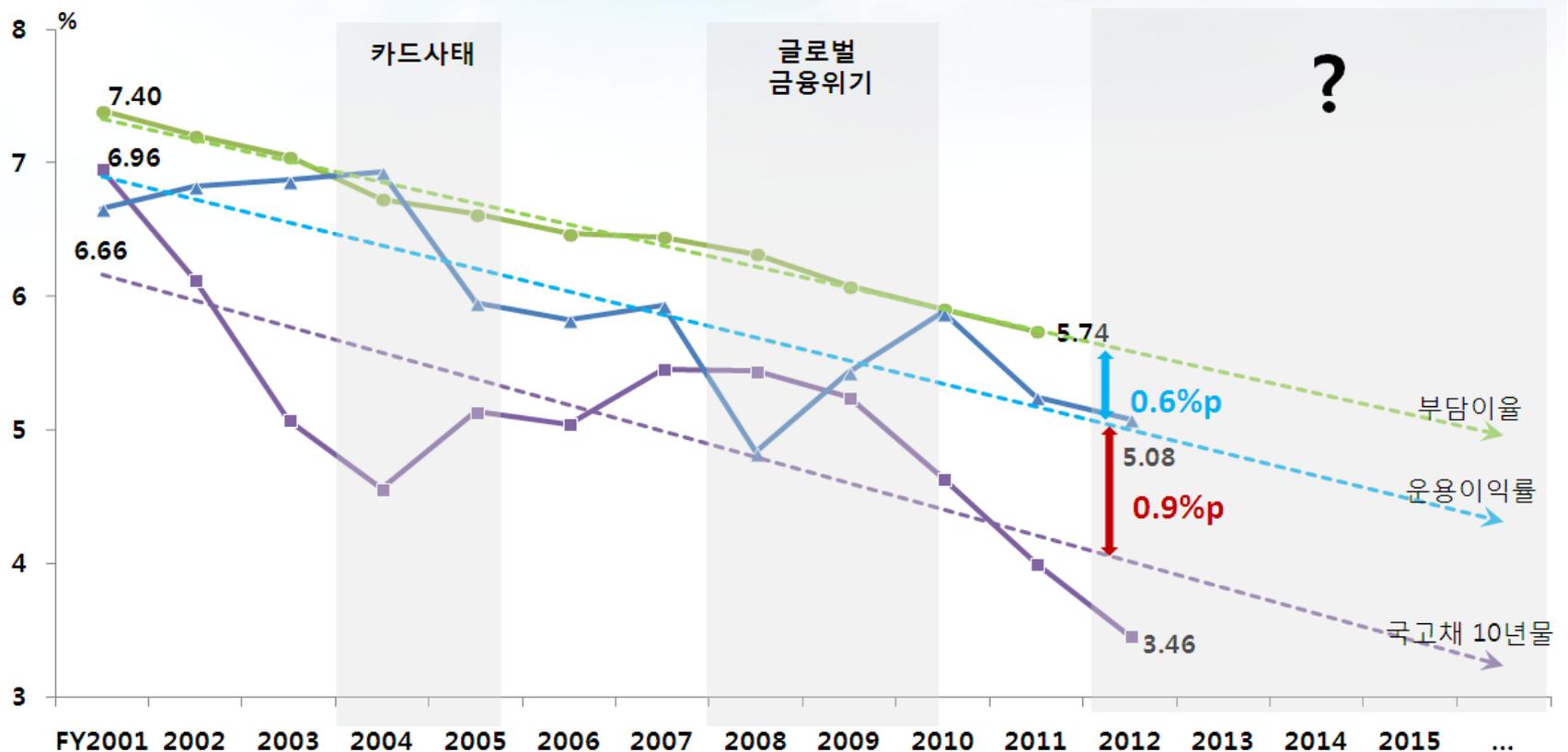
I-6. 생명보험회사별 부담금리 변화

- 2000년 이후 지속적인 부담금리 하향 노력
- 대형 보험사일수록 준비금 부담금리 하락에는 긴 시간이 필요



1-7. 생명보험 운용수익률과 준비금 부담이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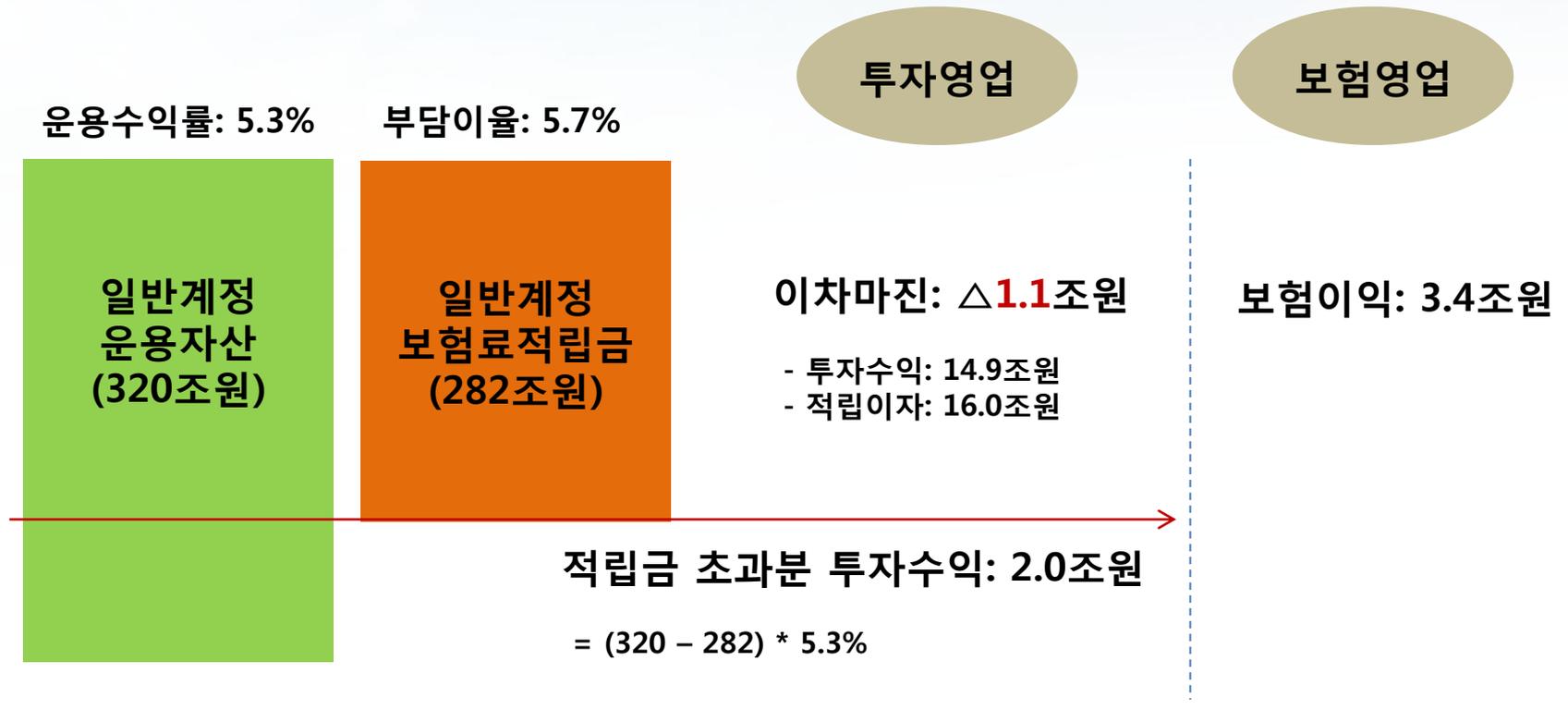
- 운용수익률과 국고채(10년) 스프레드: 1%p 내외
- 운용수익률과 준비금 부담이율 간 스프레드 : 0.6%p 내외 (역마진)



I-8. 생명보험 손익구조

➤ 투자영업부문의 역마진을 보험영업부문의 이익으로 보전하는 상황

2011 사업년도 현황



세전 손익 : 4.3조원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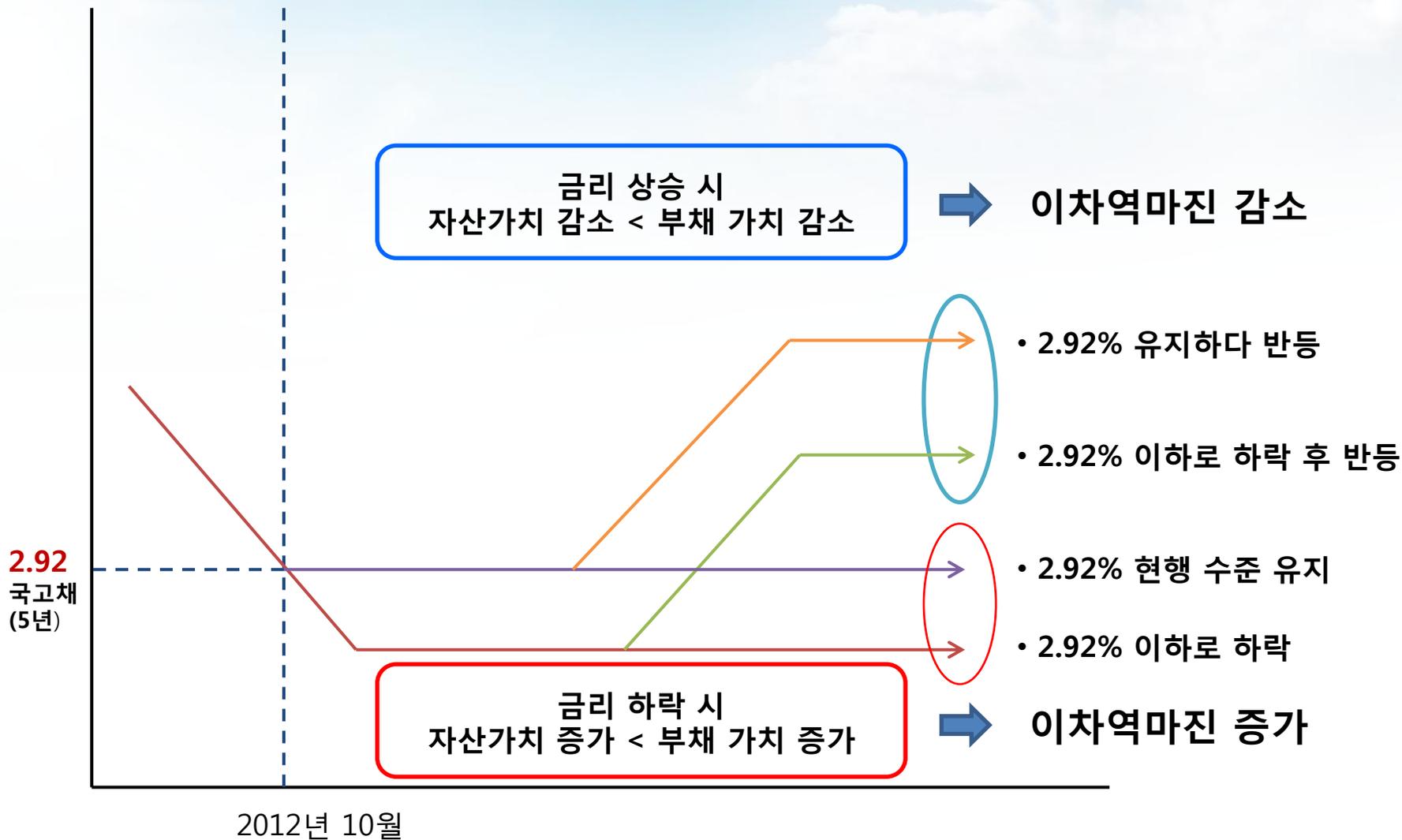
저금리영향 분석(생명보험사 중심)

시나리오별 손익분석

준비금 추가 적립 필요액

위기상황시나리오

II-1. 시중금리 변동 시나리오



II-2. 위기상황 시나리오

➤ 3가지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상정

S1	현 시점 금리(2.92%) 유지 ⇒ 신규자산 이익률 3.92%*
S2	현 시점 금리(2.92%) 보다 1%p 하락 ⇒ 신규자산 이익률 2.92%
S3	현 시점 금리(2.92%) 보다 1%p 하락 & 매년 하락 추세 지속

* 국고채 5년 금리(2.92%, 10.22일) +1%p (국고채 금리와 운용자산수익률 차이 반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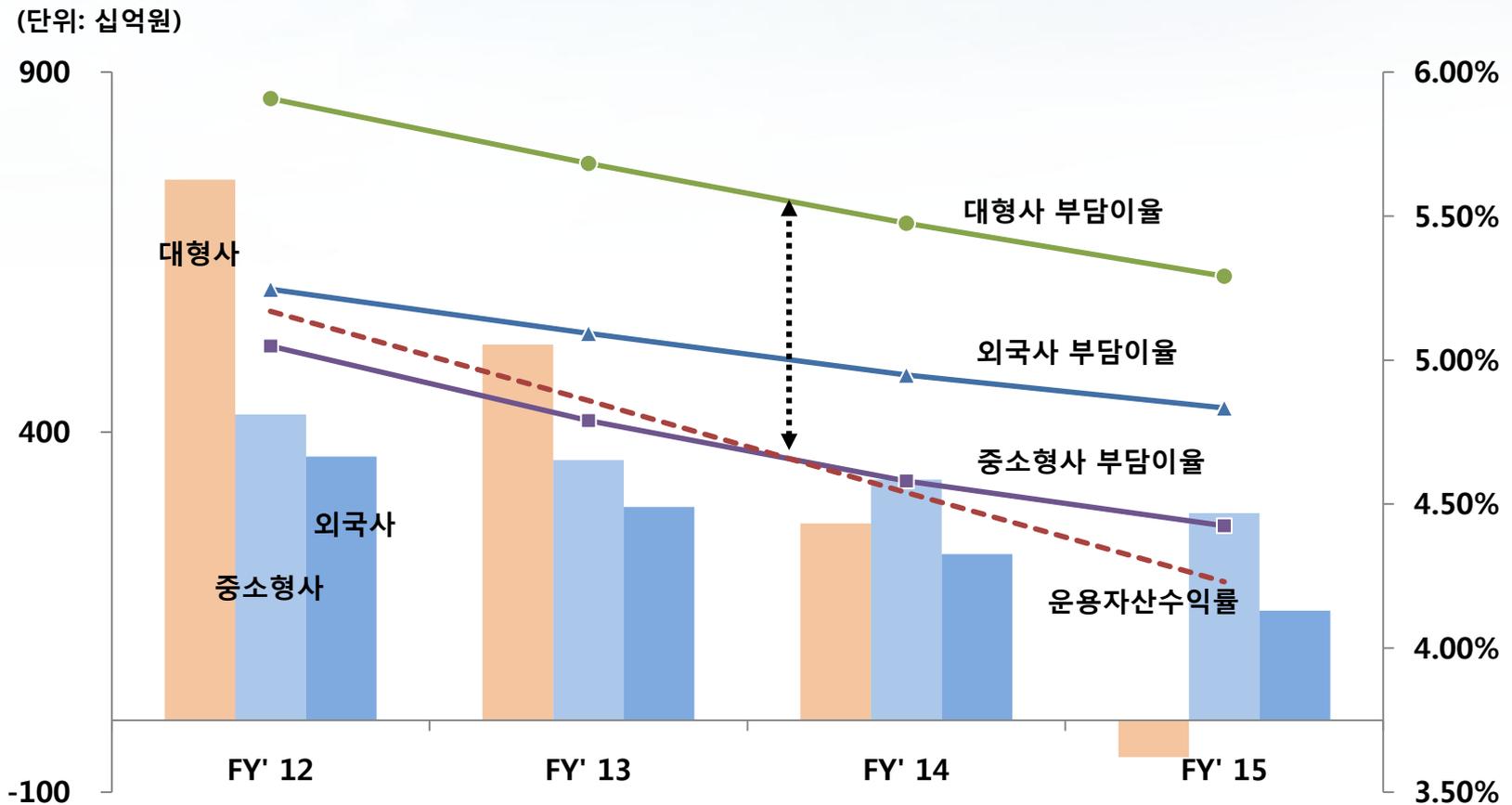
➤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운용수익률 시나리오

구분	FY'12	FY'13	FY'14	FY'15	FY'16 ~
S1	5.17%	4.86%	4.54%	4.23%	3.92%
S2	4.97%	4.46%	3.94%	3.43%	2.92%
S3	4.97%	4.27%	3.44%	2.50%	1.47%

- 보유자산이 모두 신규 자산으로 재투자되는 데에는 5년 소요: 매년 보유자산의 20%가 신규자산으로 재투자
- 신계약 성장률은 현행 수준 유지 (저성장 영향은 반영 않음)
- 보험개발원이 23개 생명보험회사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수행

II-2. S1 이차손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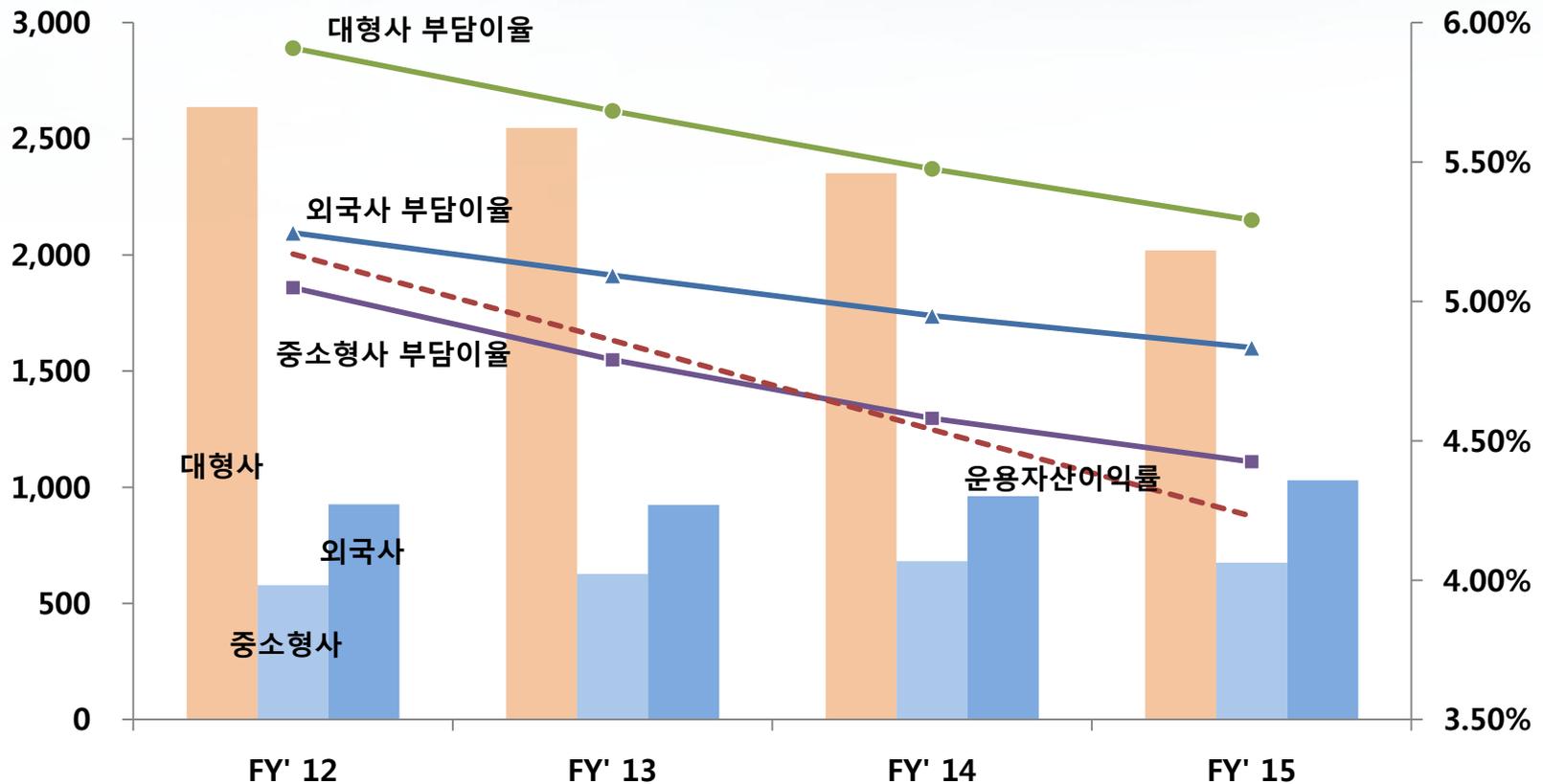
➤ (현시점 금리유지 시) 대형사는 2015년에 이차손실



II-2. S1 당기순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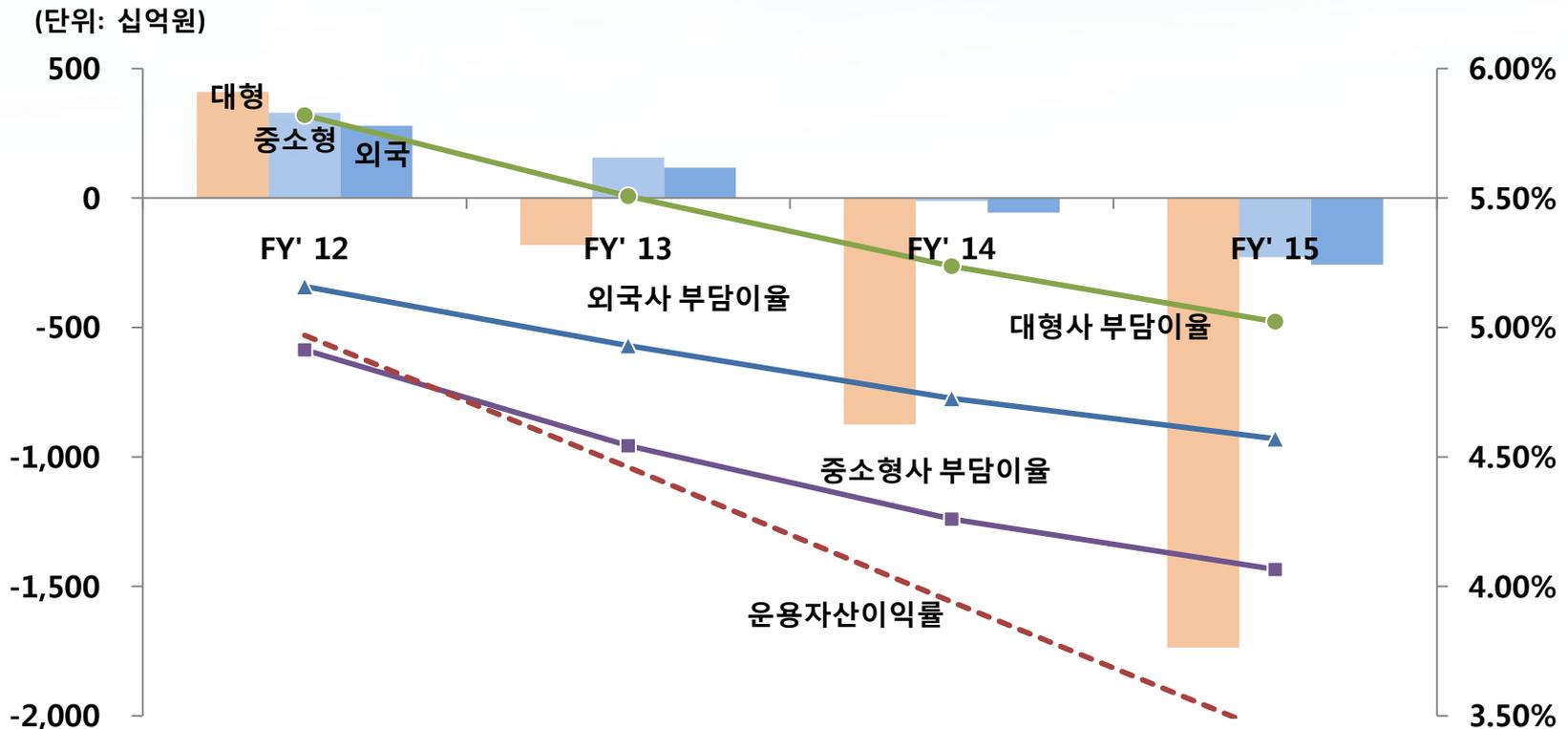
- (현시점 금리유지 시)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에는 영향 미미
 - 자본의 투자수익 및 보험영업부문의 이익으로 이차익 감소를 보전

(단위: 십억원)



II-3. S2 이차손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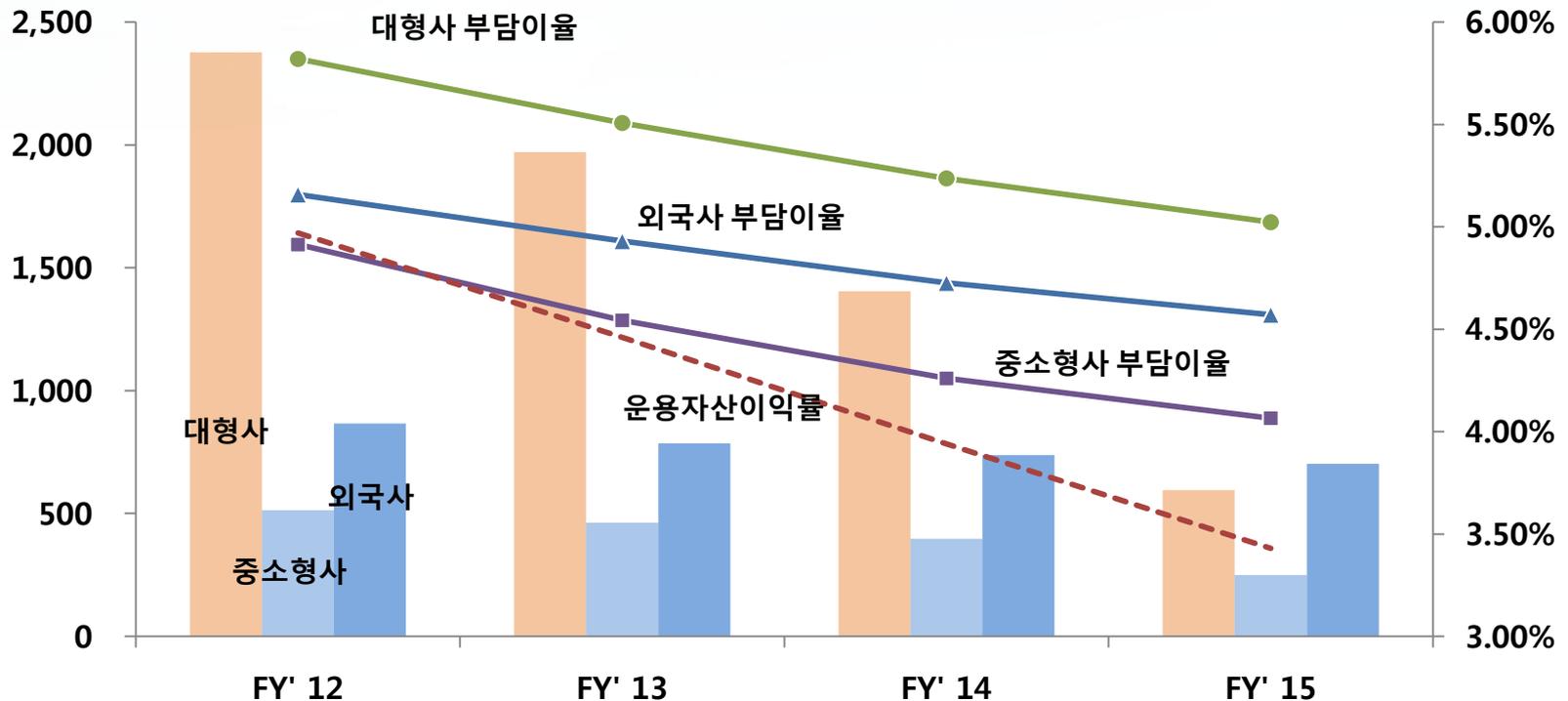
- (시중금리가 100bp 하락 시) 운용수익률과 부담이율의 이차역마진 폭 확대
- 대형사는 2013년,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2014년부터 이차손 발생



II-3. S2 당기순익 추이

- (시중금리가 100bp 하락 시)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당기순익 감소가 두드러짐.
- 외국사 역시 당기순익의 완만한 감소 추이가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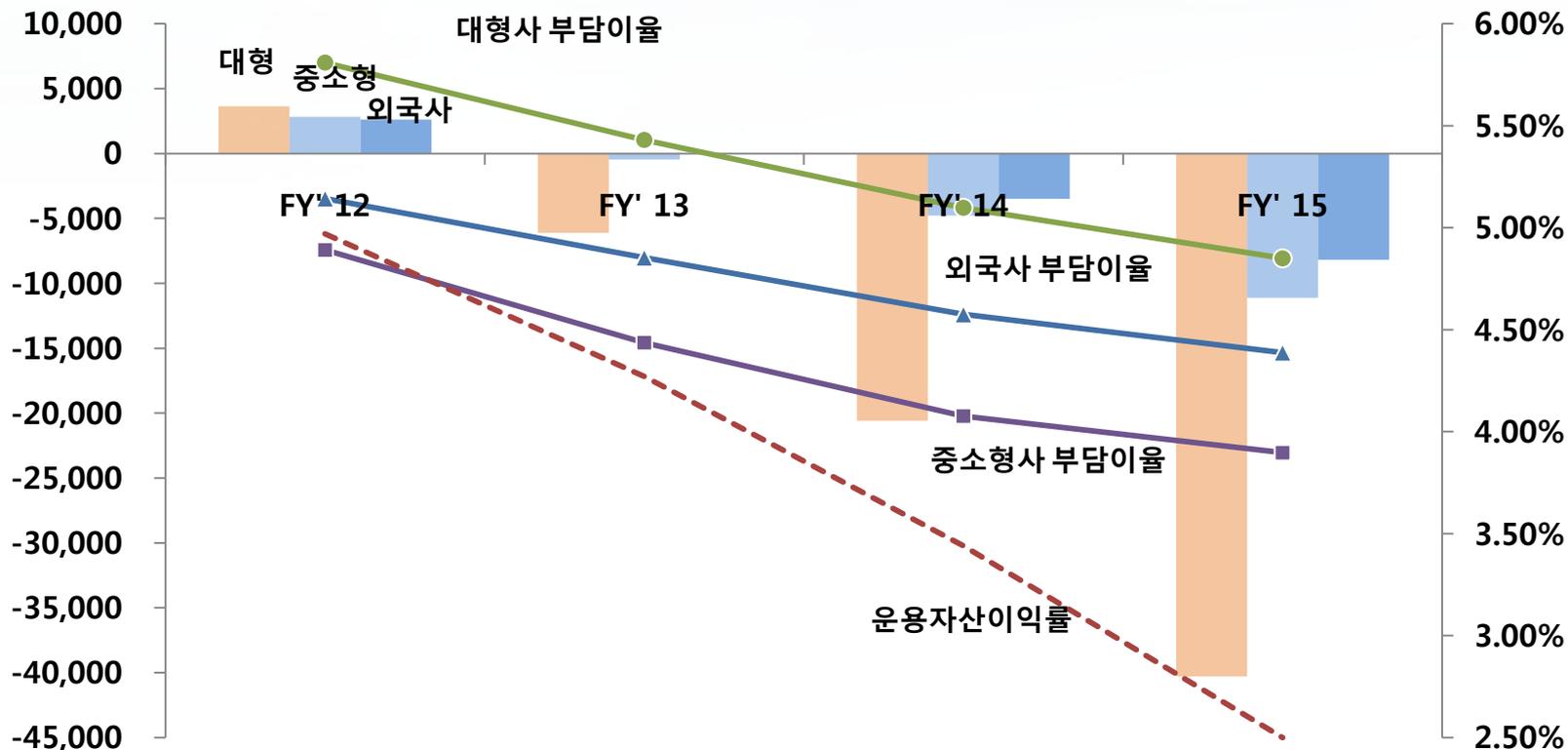
(단위: 십억원)



II-4. S3 이차손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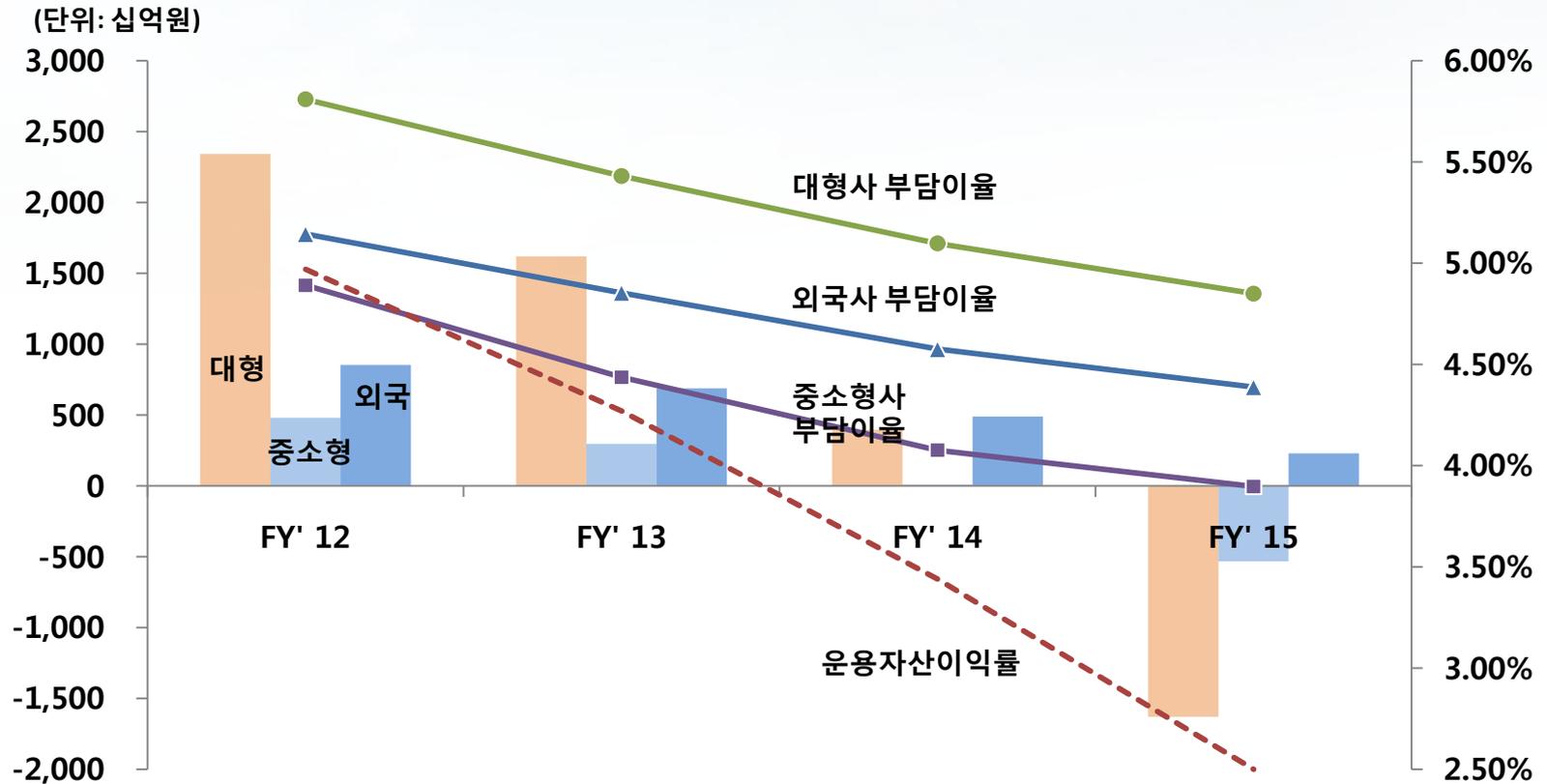
- (시중금리가 100bp 이하로 지속 하락) 국내사는 2013년에 이차손이 발생
- 외국사는 2014년부터 이차손 발생

(단위: 십억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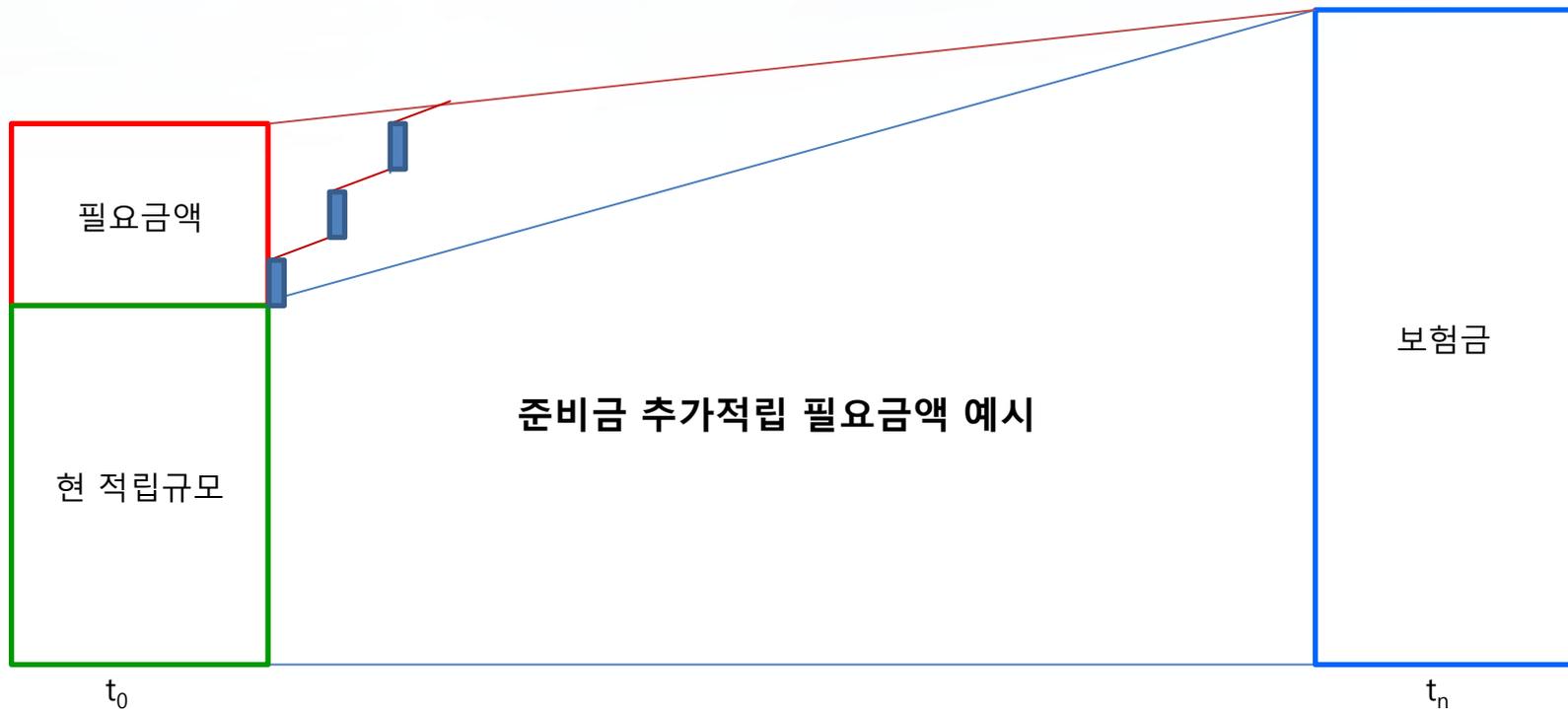
II-4. S3 당기순익 추이

➤ (시중금리가 100bp 이하로 지속 하락) 국내사는 2015년부터 당기손실 발생



II-5. 준비금 추가적립 필요 금액

- 필요금액은 향후 45년간 발생할 현금흐름의 부족분과 현재 적립금과의 차액
- 현재 금리수준(2.92%)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는 2.3조원의 추가 부담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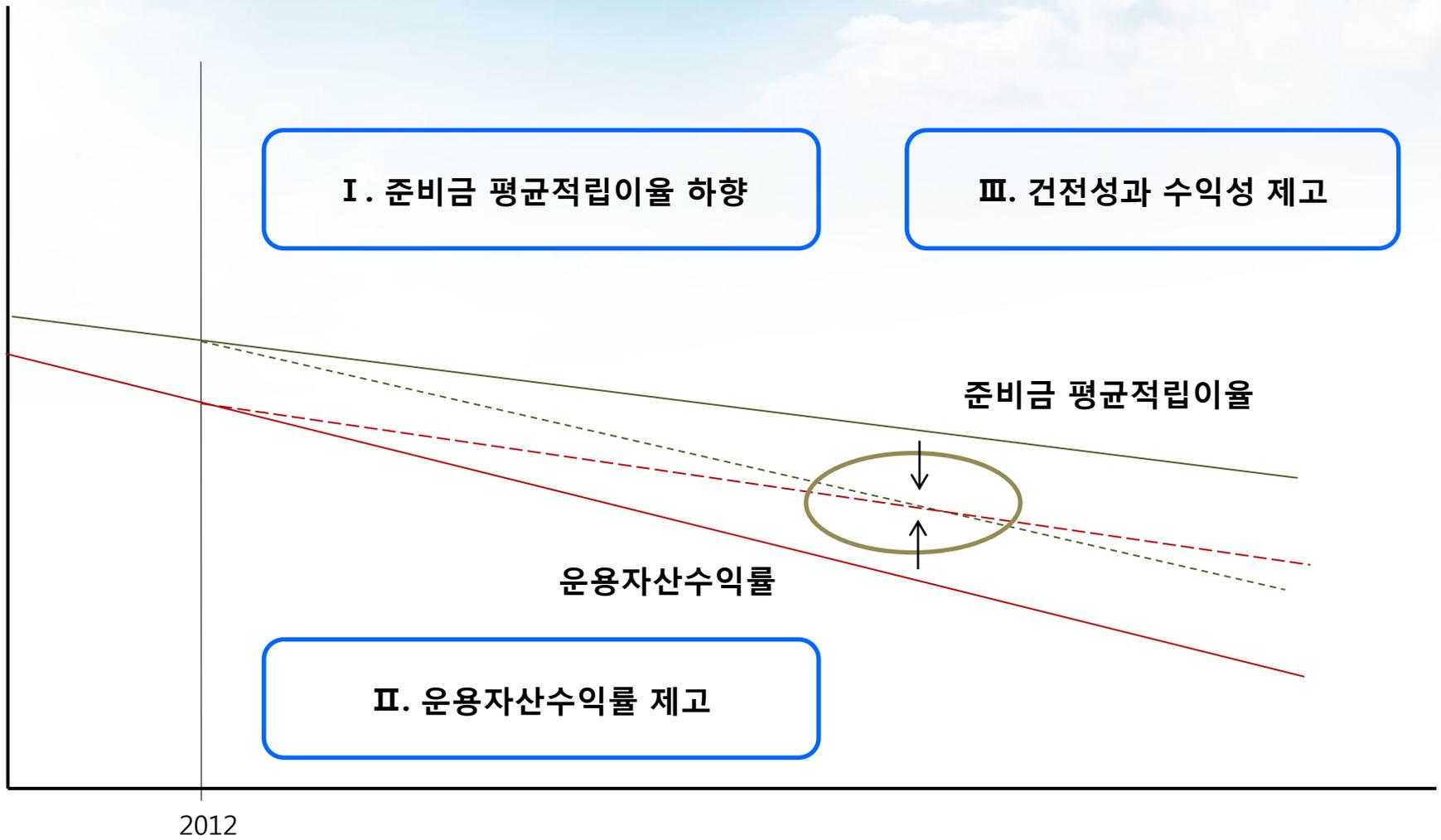
II-6. 위기상황 분석 결과 (종합)

- 금리반등 시 현재보다 이차역마진 감소로 상황 호전
- 현행 금리수준이 유지되더라도 저금리가 보험사에 미칠 영향은 미미
-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일부 보험사는 당기손실도 발생 가능
 - 다만, 시중금리가 1%p 이상 하락하여 그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은 국고채 금리가 1% 이하로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로 현실 가능성 낮음
- 현재 금리수준(2.92%)이 45년 간 지속될 경우 2.3조원 추가 부담

III 향후 과제



III-1. 저금리 대응 방향



III-2.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 방향

금리위험 관리 강화

부채중심 투자

- 금리부자산 확대
- 파생상품 활용

수익성 제고

- 다양한 채권구성
- 대체투자 확대
- 자산운용 인프라

[자산 구성]

- 현·예금
- 채권
- 주식
- 부동산
- 기타

[부채 구성]

- 보장성
- 저축성
- 연금

[자본]

상품 다변화

- 금리연동형 지속 확대
- 보장성 비중 확대
- 유배당 상품 판매

내부통제 강화

- 기초율 적정성
- 수익성 분석

위기상황 대비

- 이익의 내부유보
- 자본 확충

III-3. 금융당국의 저금리 대응 방향

금리위험관리 유인강화

부채중심 투자

- 파생상품 헤지 관련 제도 개선

수익성 제고

- 해외투자규제 완화

[자산 구성]

- 현·예금
- 채권
- 주식
- 부동산
- 기타

[부채 구성]

- 보장성
- 저축성
- 연금

[자본]

상품 다변화

- 위험률의 충분한 반영
- 이익배당의 합리적 조정
- 소비자공시 강화

준비금 모니터링

- 표준이율 방식 개선
- 준비금적정성 평가

자본건전성 강화

- RBC규제 단계적 강화
- 다양한 자본조달 허용

별첨 손해보험사 저금리영향 분석

시나리오별 손익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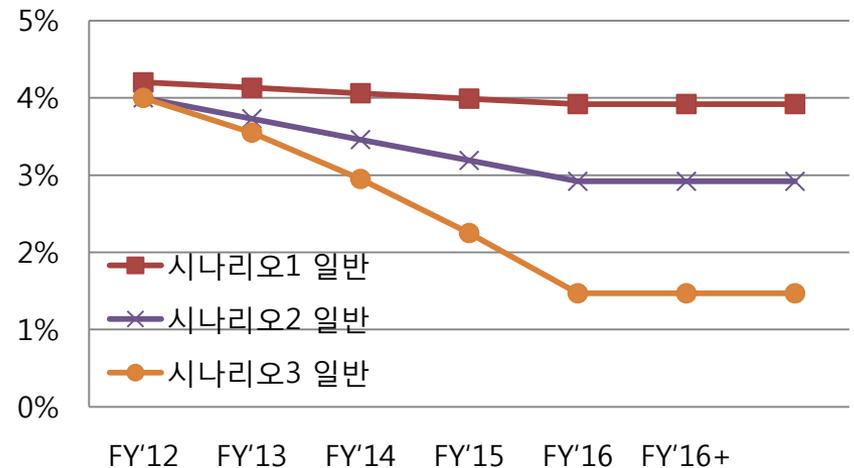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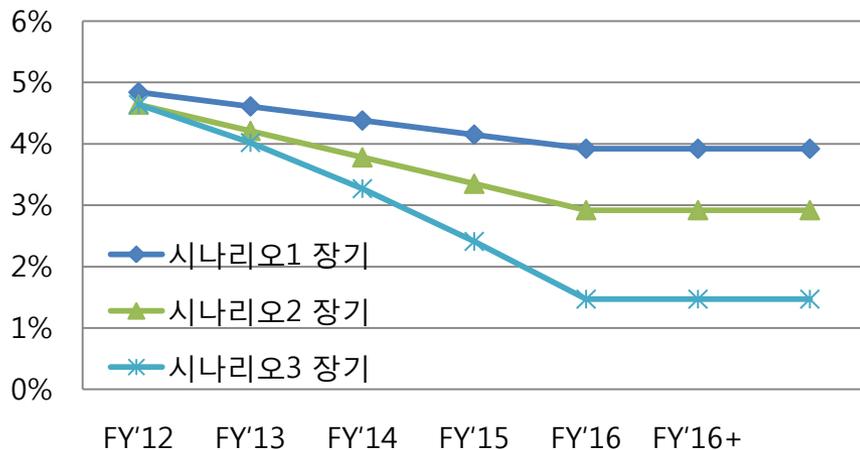
준비금 추가 적립 필요액

위기상황시나리오

별첨-1. 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

▶ 손해보험사 시나리오별 운용자산이익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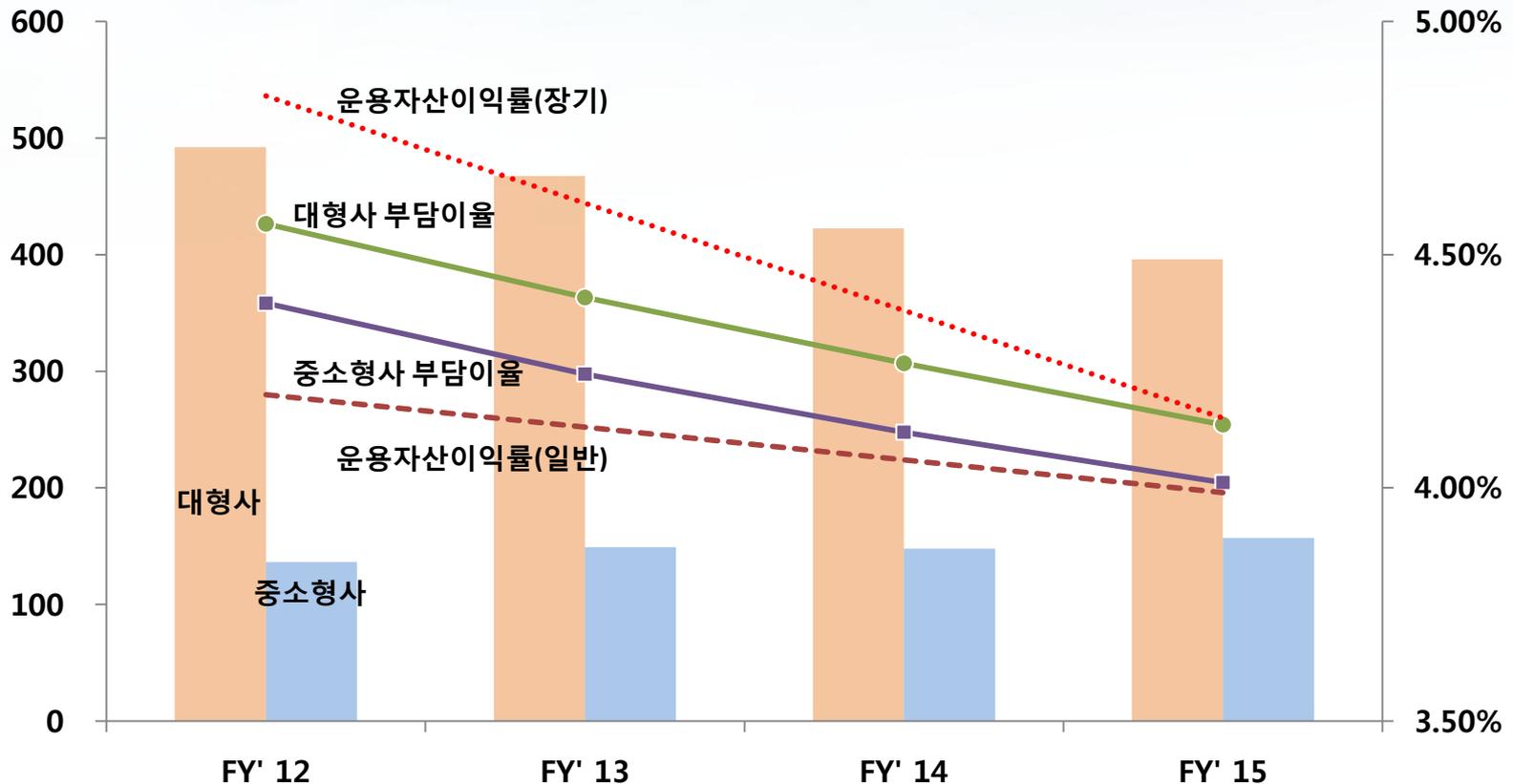
구분		FY'12	FY'13	FY'14	FY'15	FY'16	FY'16+
시나리오1	장기	4.84%	4.61%	4.38%	4.15%	3.92%	3.92%
	일반	4.20%	4.13%	4.06%	3.99%	3.92%	3.92%
시나리오2	장기	4.64%	4.21%	3.78%	3.35%	2.92%	2.92%
	일반	4.00%	3.73%	3.46%	3.19%	2.92%	2.92%
시나리오3	장기	4.64%	4.02%	3.27%	2.41%	1.47%	1.47%
	일반	4.00%	3.55%	2.95%	2.25%	1.47%	1.47%



별첨-2. S1 이차손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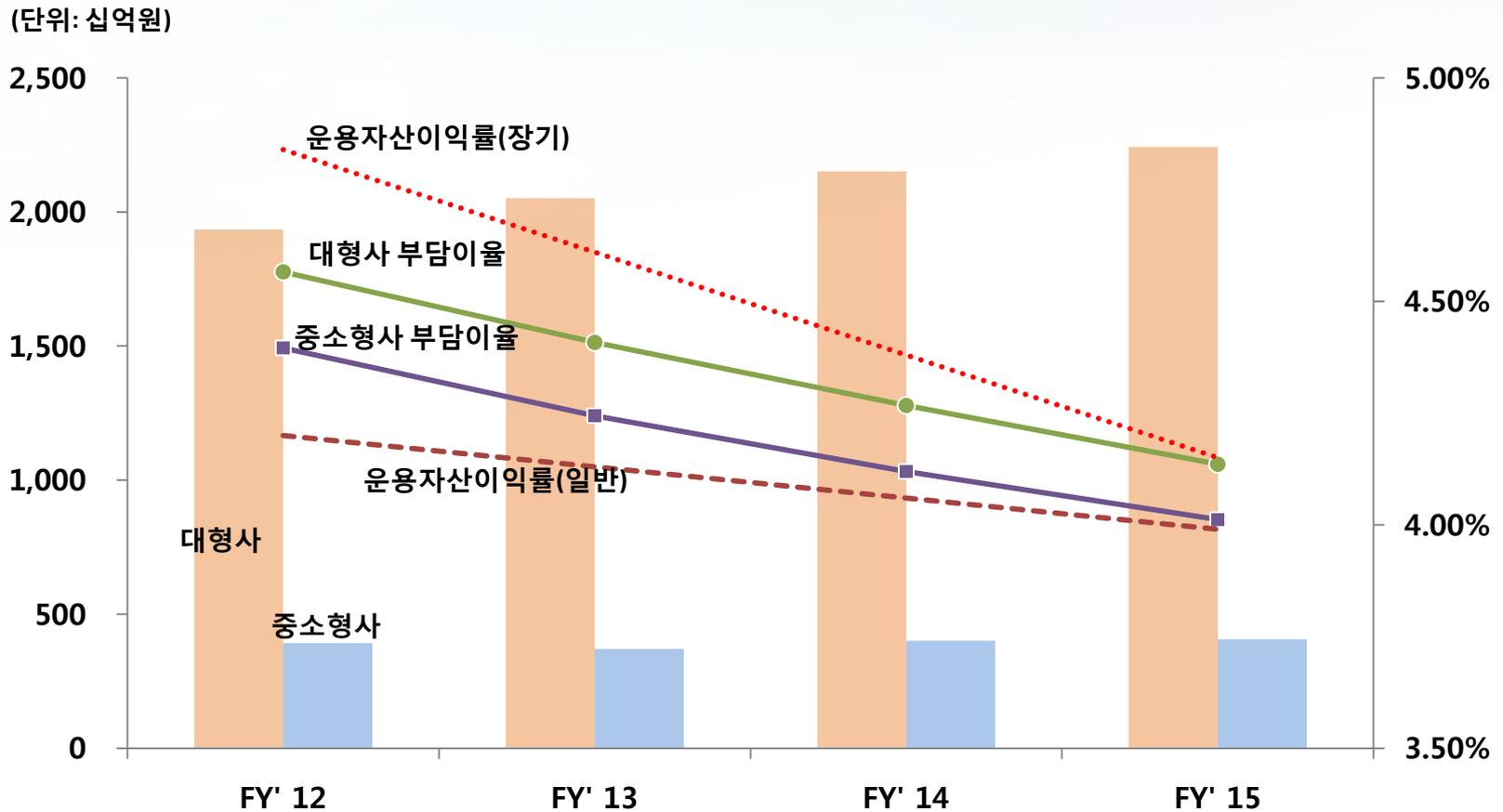
➤ (현시점 금리유지 시) 대형사는 이차손익의 감소추세를 보임.

(단위: 십억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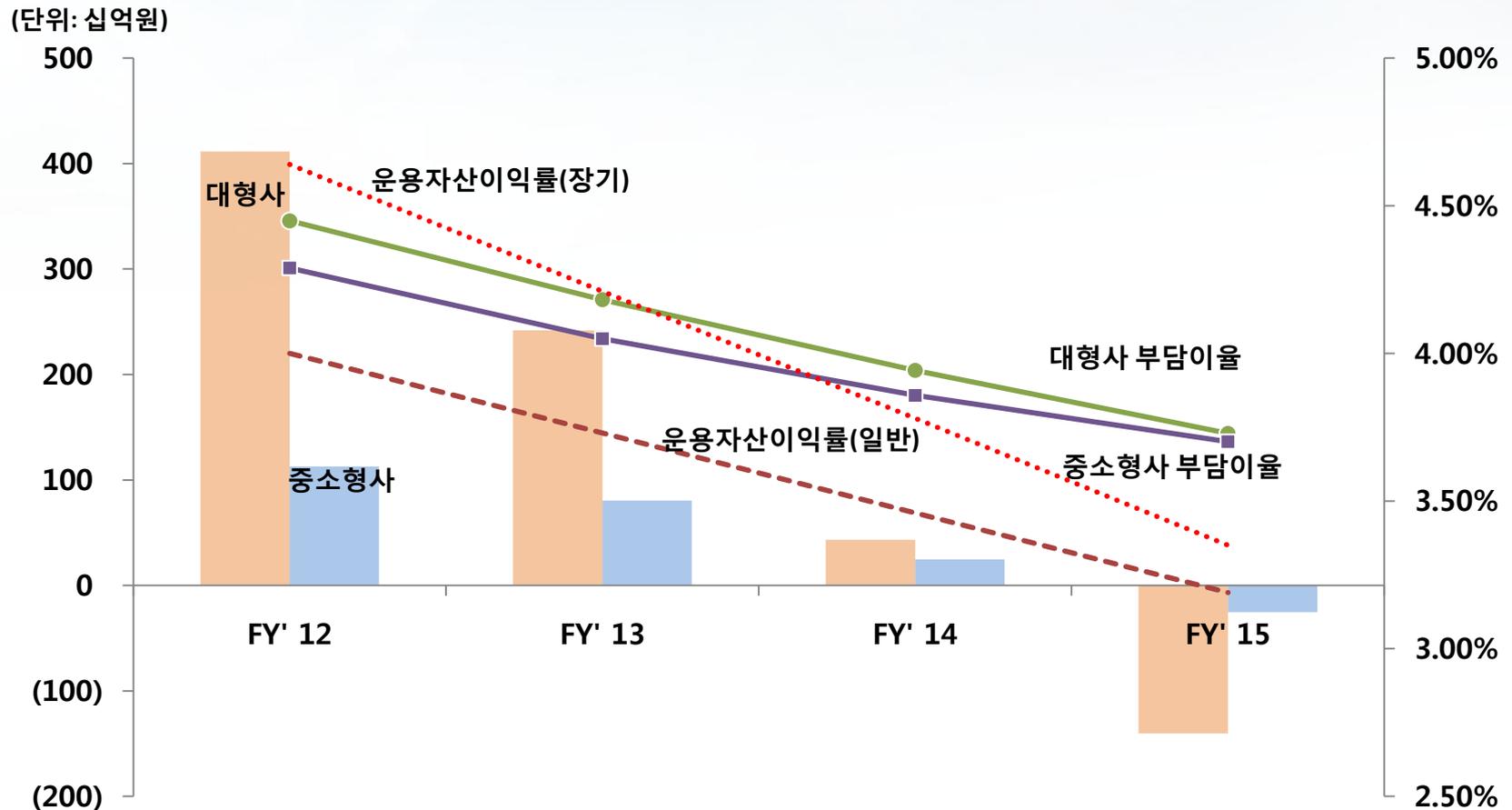
별첨-2. S1 당기손익 추이

➤ (현시점 금리유지 시) 장기 운영자산이익률이 부담이율보다 높음.



별첨-3. S2 이차손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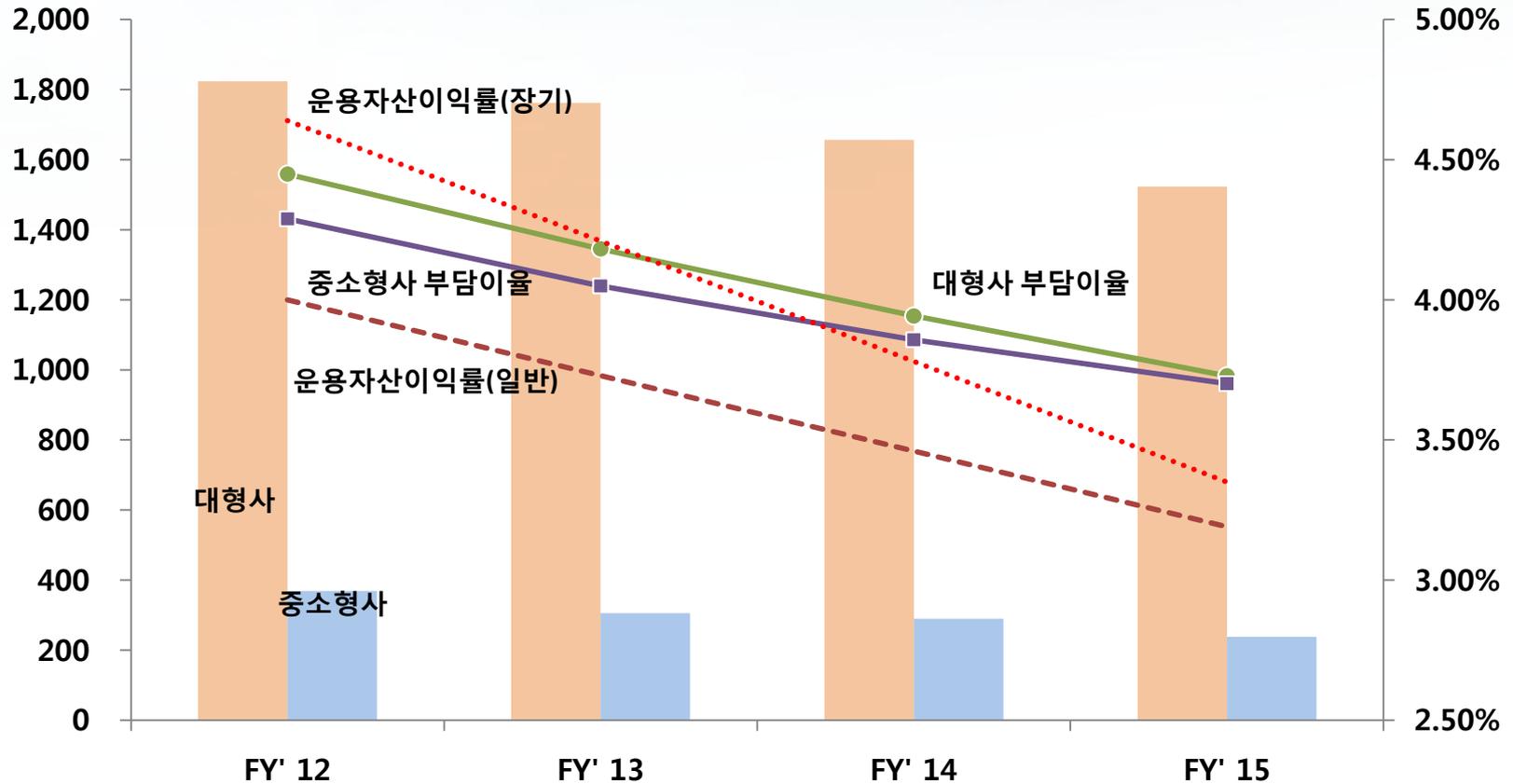
➤ (시중금리가 100bp 하락 시) 2015년에 이차손이 발생



별첨-3. S2 당기손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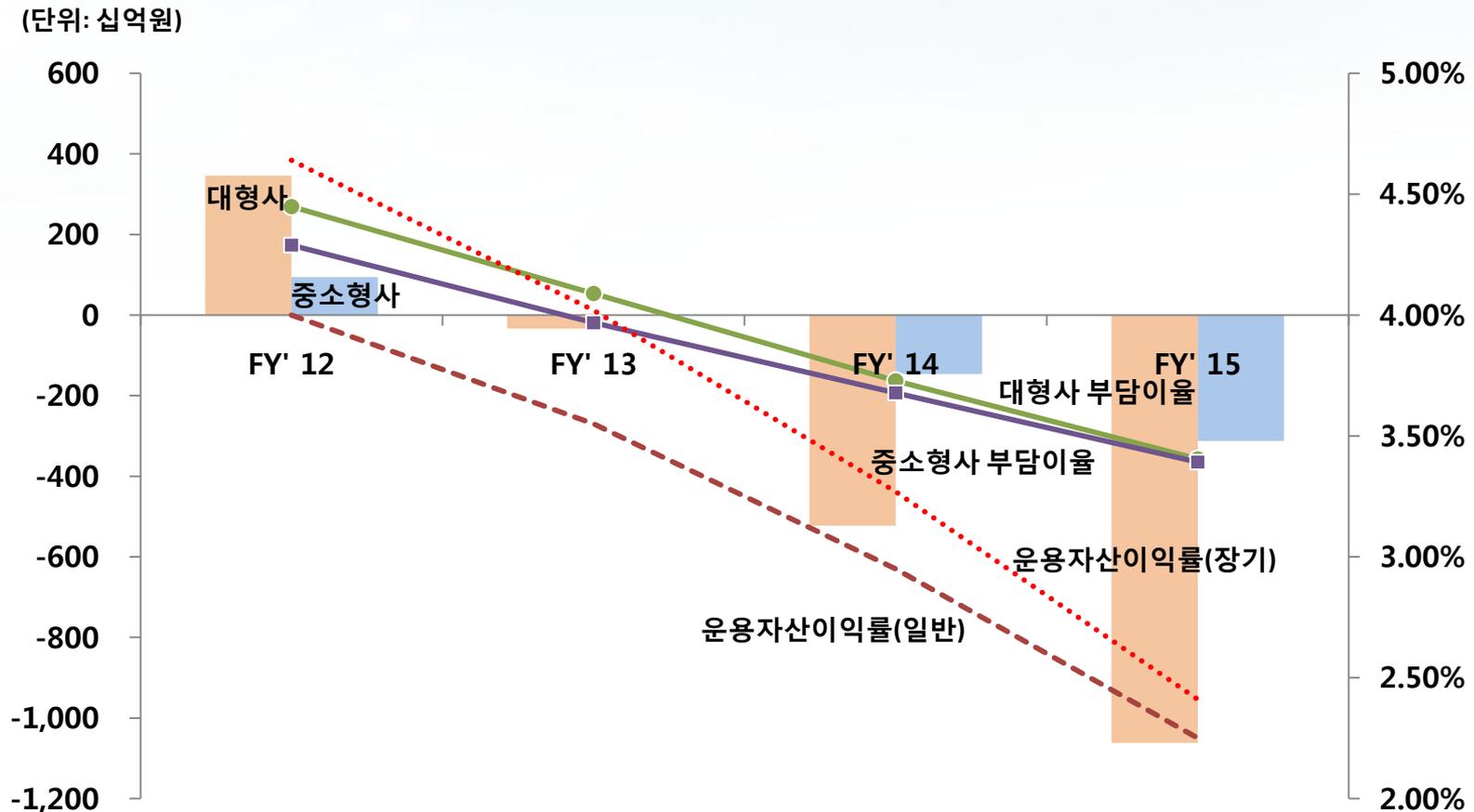
➤ (시중금리가 100bp 하락 시) 당기손익이 줄어듦.

(단위: 십억원)



별첨-4. S3 이차손익 추이

➤ (시중금리가 100bp 이하로 지속 하락) 2014년에 이차손익 발생



별첨-4. S3 당기손익 추이

➤ (시중금리가 100bp 이하로 지속 하락) 중소형사는 2015년 당기손실 발생

(단위: 십억원)

